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

— 2021 전태일노동구술기록 3

이소선 구술기록집을 펴내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이 분신항거하며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소선 어머니와 전태일의 친구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평생을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무겁습니다.

2020년 지난해는 전태일 50주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은 이소선 10주기입니다. 청계천에 전태일기념관을 세운 지 3년, 8월 6일이면 1차 수탁 운영이 끝납니다.

전태일기념관은 개관 특별 사업으로 전태일 50주기와 이소선 10주기를 맞아 노동구술기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 전태일 운동에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분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영상과 기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전태일과 이소선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뜨거운 삶을 통해 구현된 실천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노동구술기록 자료를 통해 누구나 전태일과 이소선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전태일의 피맺힌 당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태일기념관을 세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전태일에 관한 구술기록 ‘친구들’ 편과 ‘가족’ 편 두 권이 출판되었고, 올해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또 펴내게 되었습니다. 전태일기념관 1기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기억을 되살리며 구술기록에 참여해 주신 전태일과 이소선의 가족들, 친구들, 청우회 식구들, 유가족 동지들 그리고 전태일기념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촬영과 영상 제작, 기록과 출판, 앨범 제작을 맡아 주신 동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뒷바라지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은 기념관 식구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은 앞으로도 전태일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여러 자료(콘텐츠 포함)를 모으고, 만들고, 보관하면서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관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통해 전태일 정신과 전태일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이수호

차례

인사말	2
1부 노동자의 어머니와 대학생(인터뷰 1회차: 장기표)	6
2부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이소선 정신(인터뷰 3회차: 박계현, 이형숙, 황만호)	60
3부 여성운동가 이소선(인터뷰 4회차: 정인숙, 유정숙, 이숙희, 이승숙)	114
4부 우리들의 어머니(인터뷰 5회차: 이승철, 최종인)	182
5부 남겨진 사람들의 어머니(인터뷰 6회차: 장남수, 배은심, 박래군)	236
번외: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의 의미와 가치(인터뷰 7회차: 이수호)	312

1부

노동자의 어머니와 대학생

인터뷰 1회차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15:00

왼쪽부터 장기표, 이수호



1. 대학과 노동문제

이수호 올해는 이소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산재한 모순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젠더, 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가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늘 이야기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항거 이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땅의 노동자들과 체제의 모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식처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는 전태일의 어머니를 넘어서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노동운동은 전태일 정신에 따라서, 이소선 어머니께서 다져 놓은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태일기념관은 앞으로 5회에 걸쳐 생전에 이소선 어머니와 뜻을 함께했던 동지이자 사적으로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모셔서, 더 늦기 전에 이소선 어머니의 행적과 사상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오신 장기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전태일의 분신항거 직후 어머니와 인연을 맺고,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의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 투쟁해 오신 관계입니다. 1986년에 선생님이 옥중에서 쓰신 수기를 저희가 같이 보았는데, 그 차가운 자리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소선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어머니의 사상과 행적을 다시 한 번 회고하고, 혹여 잘못 알려지거나 잘 알려지지 않는 것

들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면서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근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검찰에서 전두환이 주도한 신군부 쿠데타 시기, 1980년이죠. 그때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한다고 했는데요. 당연한 일이죠.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명예회복도 되고 역사가 바로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장기표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특히 1980년 그때, 이소선 어머니가 고려대학교에서 강연하실 때는 정말 엄중하고 살벌했습니다.

이수호 그럴 때죠.

장기표 12·12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살벌할 때고, 특히 사북광업소와 함께 청계노조가 관련이 깊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수호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도 연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기표 예. 아무쪼록 말씀대로 더 늦기 전에 이소선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들, 물론 전태일 동지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특히 함께 활동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서 증언할 수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어머니와 인연을 맺은 1970년 11월 13일을 중심으로 생각

해 본다면, 그때 학생이셨죠?

장기표 네.

이수호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소선 어머니와 워낙 오랜 세월을 함께 활동하셨기에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서 어머니와 처음 만난 과정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이셨는데요. 그 당시 대학생들은 노동이나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대체로 대학생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았었는데 선생님은 특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는 대학 진학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은 시기였죠? 제가 알기로는 10퍼센트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학생 신분만으로도 미래가 보장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회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현실 인식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전태일 분신항거 이전에, 그 당시 대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노동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들이라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주요한 사회적 의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직전이었으니까 통일이나 한일협정, 삼성기업 문제와 같은 정치적 이슈 등이 상당히 있었죠. 두 번째로 당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지요? 대학생들도 자신이 노동계급이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했는지. 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노

동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 등.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노동운동이 금기시되었는지, 노동운동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레드 콤플렉스, 아니면 노동 의제가 대학 내부에서 다른 사회적 의제들보다 덜 중요시 여겨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그 당시 상황과 분신항거를 전후해서 대학생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표 그때는 대부분 농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 당시 농촌에서는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입신양명을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죠. 대학생이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노동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대학에 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웃음) 대체적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러나 그때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 시기에도 노동운동이 있었고, 사회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에 기초하고 있어야 해서 사회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은 위험지대였고 기피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제가 1964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4·19혁명에 대해 지식인들, 학생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독재정권을 끝장낸 국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학생들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이처럼 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강했어요.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도 학생 운동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의식에 기초해서 학생운동을 하려는 사람들, 조금 더 깊이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죠.

특히 1964년도, 모택동에 의한 중국 혁명이 1949년이잖아요. 1964년이 그로부터 15년 후니까 그때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이 컸어요. 1964년 경에 김상협 고려대학교 총장이 『모택동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주요 사상은 대장정이에요. 모택동이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대장정을 한 기록이 들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모택동이 가는 곳마다 인민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절대로 인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전범을 만들었고, 그게 또 하나의 전술이기도 하고. 기본 사상이기도 하지만 또 전술이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영향으로 사회를 변혁코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농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농민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심지어 어릴 적부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웃음) 그래서 법대 들어가서 1학기 다닌 후에 6개월 동안 세미나도 하고 야유회도 많이 했어요.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모시고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리라고 보아 1학년을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 등록하려고 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학교지요. 농민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요. (웃음)

이수호 <가나안농군학교>를 건설하신 분이죠

장기표 그분 강연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세상 못 바꾸겠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가려다가 그만둔 일이 있어요. (웃음) 또 대전에 <복지농도원>이라고 있었어요. 한인수 씨가 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데도 가 보고. 그 정도로 농민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상대 출신들이 농민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도시포위 전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유치한 수준이죠. (웃음) 저는 촌에서 자랐는데요. 농민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는 노동자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웃음) ‘결국은 노동자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노동문제에 대해 각별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농민들의 고생을 한번 체험해 보자’ 그런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 다녔잖아요. 사회법학회는 농촌 봉사활동보다는, 그 당시에는 근로자라고 불렀는데요, ‘근로자 실태조사’처럼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만큼 저희는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수호 근로자 실태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이른바 청계천 평화시장을 비롯한 봉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회보인가 학회지인가, 여하튼 발행하던 곳에 게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전태일 분신헌거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것과 관련지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운동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농민운동도 하려고 했고, 노동자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죠. 조영래하고 함께 그걸 규탄하고 투쟁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학교를 못 다녀요.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군대도 다녀와야 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안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군대 다녀와서 1970년에 복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직업적 학생운동을 했어요. 전태일과 제가 만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시 그냥 학생 한 명이 아니고 속된 말로 전국 학생운동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웃음) 굉장했죠. 경북대, 연세대, 고려대, 전남대 등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학생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을 알리는 신문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1970년 10월 3일 개천절 날 <자유의 종> 제1호를 발간했어요. 그때는 가리방(등사기)으로 해서 A4용지 4면으로 만들었어요. 제2호 발행이 10월 10일이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요. 그런데 10월 7일이 이른바 언론에 <평화시장 특보>가 나간 날이예요. 제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다락방 속에서 16시간 노동’, ‘직업병 환자’ 이런 내용 등이 보도가 되어 제가 그 내용을 <자유의 종>에 발췌해서 실었어요.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법대에서 평화시장까지 500미터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번 평화시장에 가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때 한일문제 강연회가 있었어요. 당시 한일문제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했어요. 일본 관서공업지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영희 선생이 오셔서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강연했어요. 저는 그 일로 그분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법대에서의 강연에는 법대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강연 내용도 좋잖아요.

하여튼 제가 평화시장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평화시장에 한번 가 봐야지 했는데, 제가 그 강연 때문에 경찰 수배를 받았어요. 제가 ‘지주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웃음) 이영희 선생 강연 내용도 그렇고. 그러는 사이에 11월 13일 분신항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한번 갔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수배 중이니까 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사건이 끝난 건 아니지만 분신 자결한 현장은 없고 병원으로 이동했을 때니까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요즘은 라디오도 있지만 그때는 아침 신문 안 보면 뉴스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인가 주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저희 하숙집에도 못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5일 오전에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수호 그러니까 전태일이 삼동회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한 것이 마침 경향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선생님께서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자유의 종>에 실었고, 또.

장기표 그래서 제가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죠. (웃음) 전 이미 가 봤어야 하는데 못 가 본 사람이니까.

이수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그 당시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컨대 지주라는 단어를 쓴 것만으로 문제를 삼고, 이걸 ‘이데올로기 문제다, 북한과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심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장기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요. (웃음)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때는 더 그랬어요. 법대 교수들이 전부 다 동경제국대학 출신들이예요. (웃음) 동경제국대학 가려고 하면 지주의 아들쯤 되어야 가지, 아니면 갈 수 있겠어요?

이수호 맞아요.

장기표 제가 1970년대에도 운동을 했는데 학생운동을 하다 보면 교수들이 매일 불러서 “너희도 커 봐라. 커 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지주의 아들들, 저는 교수님들처럼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웃음) 옛날에는 경찰서가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주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동대문경찰서에서 저를 사상이 불온한 사람으로 취급했죠. 사실 수배는 한일문제 강연회 때문이었어요.

이수호 네, 한일회담 진행하고 그 무렵이니까. 사실 이 문제만 이야기해도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고. 그 당시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계셨는지요? 다음 질문에 나오지만 조영래 변호사 이야기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를 전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표 지나고 보면, 그때 저와 함께 전태일 문제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 계속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으로, 정의감으로,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니까 반대 투쟁을 했지.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설정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 서울대 법대가 작았어요. 옛날에는 서울대학교가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법대는 법대생끼리 다 알아요. 데모를 해도 데모 주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와요. (웃음) 전태일 사건 때도 저 같은 직업 활동가들만 데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다 나왔어요. 조영래를 알게 된 건 그때죠. 제가 학교 안 다니고 농민 운동 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조영래가 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하나?” 하면서 인연을 맺었어요. 조영래는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하면 좋을 이야기지만. 안경환이라는 사람이 법대에 있었어요. 『조영래평전』을 썼는데요. 제가 해명을 좀 하고 싶어요. (웃음)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조영래가 전태일 문제에 뛰어든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접근이었으나, 장기표가 전태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정략적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데 조영래도 저도 정략적이죠. 정략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

가 아니라고요.

이수호 그렇죠.

장기표 (계급적 관점에서) 전태일이 어렵게 살고, 이소선 어머니가 어렵게 살고 그런 건 주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평화시장, 청계노조, 이소선 어머니, 전태일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잖아요. 전태일, 평화시장, 청계노조는 전략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단위는 전술이 아니라 최종 승리를 쟁취하는 힘이에요. 왜냐면 전태일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전태일을 내세우면 지식인이나 학생들을 다 참여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도 한복판에 2만 명의 노동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인간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웃음) 제 나름대로 전략적 이유가 있었어요.

이수호 계급적 관점, 그것도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걸 저쪽에서 그 자체를 형식상 범죄행위 비슷하게 보니까.

장기표 부도덕하게 보는데요. 전혀 그게 아닌데.

이수호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웃음) 역으로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장기표 씨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다 같이 전략 단위로 혁명을 꿈꾸며 살면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하죠.

장기표 이왕 나온 김에 순서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요. 흔히들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의 유언,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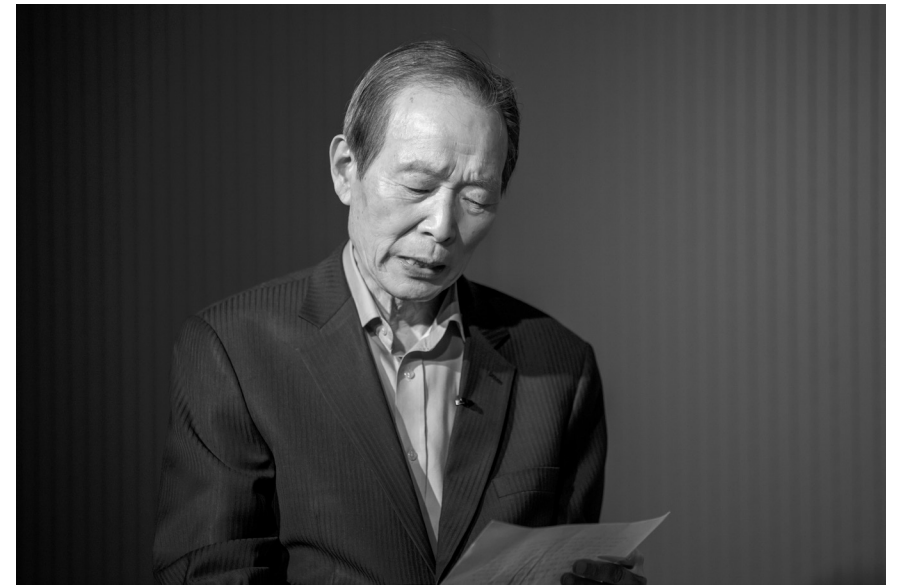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했다고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받들어서만, 또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노동운동과 인간해방운동에 평생을 바친 분이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들의 당부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들의 죽음, 아들의 당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능히 그러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소선 어머니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와의 만남은 굉장히 숙명적이에요.

이수호 어머니와 만남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그 당시 분위기와 선생님의 위치를 보면 선생님은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직업운동가로 자처하면서 사셨는데요. 11월 13일 분신항거가 일어난 이후에,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죠. (웃음) 굉장히 의도적으로. (웃음)

장기표 자연스럽게도 하죠. (웃음)

2. 노동자와 지식인의 만남

이수호 그렇죠. 계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웃음)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는데요. 선생님과 어머니께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이후에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은 이소선과 장기표라는 개인의 만남을 넘어 노동계급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지식인 계급이 만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일들이



장기표

궁금합니다. 물론 『전태일평전』이나 여러 기록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선생님의 육성으로, 그 당시 전후 사정을 체계적으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전태일의 분신항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가장 먼저 달려오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법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되었는데 호소문도 작성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의나 역할, 그리고 장례가 무산된 이유 등은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당시 수배 상황이었는데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해가 있었는지. 또 직접 나눈 대화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이소선 어머니 첫인상은 어떠했는지. 저도 예전에 이소선 어머니를 보았을 때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전태일의 어머니로 노동운동의 전선에 나오지는 않으셨을 때니까. 그리고 정부와 협상 과정 때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와 가까워진 계기 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기도 하실 겸 장례식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유의 종>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10월 7일 평화시장 특보로 보도된 ‘다락방 속에서 16시간 노동’ 기사를 발췌해서 2호에 옮긴 후에, 한번 평화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뒤에 분신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고, 내가 한발 늦었구나’ 했죠. 또 거기가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가 봐야 했는데.

이수호 거기 음대도 있었고.



사직공원에서 이소선, 전태삼, 장기표, 1973, 전태일기념관

장기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평화시장이 가게 하나,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웃음) 어디 가서 만날 방법이 없어요. 갔어도 못 만났을 거예요. 가게가 수천 개 있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엔 후배 둘을 데리고 갔어요. 질문지에 장례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모병원 영안실이에요.

이수호 그 당시 명동 성모병원이죠?

장기표 네. 영안실에 후배를 보내서 누구 좀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전태일 이모부가 나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전태일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깐 괜찮다고 하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명동성당 앞에 삼일다방으로 오시게 했어요. 날이 쌀쌀했는데 거기서 제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삼일다방으로 모셔서 제가 “저는 대학생인데요. 아드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딱 첫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태일이가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왜 죽고 나서 찾아왔소” 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전태일이 청계천 노동자들을 위해 한 일들, 풀빵 이야기, 각혈 이야기 등을 하면서 태일이가 이런 힘든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다들이 밥 굶고 있는 걸 보고 차비를 털어서 풀빵 사 주고.

이수호 그 이야기를 첫 만남에서 어머니가 다 얘기하신 것인가요?

장기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수호 저희도 많은 분을 인터뷰했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평상시 저녁에 엄마와 소통하면서 엄마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근로기준법도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나 내용을 그때 이미 다 꿰고 있었네요?

장기표 그럼요. 이런 내용은 책으로 많이 나왔기에 길게는 말 안 할게요. 첫 만남에서 전태일이 노동운동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태몽은 어떤 꿈이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어요. 그런 후에 저는 학교에 가서 법대 학생총회를 열었어요. “지금 청계천에서 분신 자결한 사람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전태일이라는 사람이다. 이런 운동을 했고, 대학생 친구 하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죽었는데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때 한 말들이 신문에 나서 제일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장기표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을 잠재적으로 만나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어요. 명시적으로 그런 의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를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웃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전태일이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 거나, 이소선 여사가 바란 거나, 제가 바란 거나 같았기에 길게 따져 볼 게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보보다도 공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통의 목적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동지적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수호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삼위일체’ 주장까지도 하셨는데. (웃음) 하여간 첫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요. 그



전태일기념관 수장고에서 이소선과 장기표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서

이후에 장례를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장기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저녁에 하숙집을 돌아다녔어요. 법대는 사법시험 공부하러 가서 학생들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웃음) 법대생은 대부분 하숙집에 있거든요. 제가 하숙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일 학생총회 열자. 어머니가 시신 인수도 거부하고 장례식도 안 치른다 하니 우리가 법대 학생장으로 치르자”라고 설득해서 학생총회에서 그걸 결의했어요. 이후에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나 마나 경찰들이 우리보고 시신 탈취한다고 할 테니까 시신인수 각서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법대생 70명이 몰려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영안실이 작고 형편없었어요.

이수호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장례는 다 집에서 치렀으니까요.

장기표 딱, 영안실에 긴 의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영안실 문화가 개선된 것은 정말 잘된 거예요. (웃음) 삼성이 문제가 많은데, 영안실 문화는. (웃음)

이수호 삼성병원?

장기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 그런데 거기에 김순례라고 있었어요. 전태일과 한동네에 사는 이웃인데 팔죽을 끓여와서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다음 날 학생들이 전부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는데 마침 뒷문이 있어서 저는 도망갔어요. 그러곤 장례

날을 잡았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일인가 20일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을 19일에 치렀을 거예요.

이수호 7일째인가 그 사이였어요.

장기표 아마 19일 즈음일 거예요. 창동 창현교회에서 치렀어요. 저희는 일절 안 갔어요. 어디에는 장례에 간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저희는 안 갔어요. 왜냐면 관제 장례거든요.

이수호 그렇게 타협을 한 것이죠.

장기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다 잡혀갔고, 8개 항 요구도 들어준다고 하고, 각서도 받고. 장례는 치러야 하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요. 장례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상(護喪)을 그때는 노동청장,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 장관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호상이었어요. (웃음) 저는 이 장례가 관제 장례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 장례식에서 국무위원이 호상하는 것, 재야인사로는 없지 않겠어요? (웃음) 전태일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갖추어진 거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욕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전태일에 대해서 상당히 예우를. (웃음)

이수호 그 당시 정부가 전반적인 분위기에 밀린 것일까요?

장기표 처음에 전태일이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신문에만 났을 뿐이지 그 뒤에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관여

하고 뉴스에 나오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이 갖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성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화로 박정희 대통령 조화 빼고 국무총리 조화까지 왔어요. 각 정당 대표, 사회단체 대표, 대통령 후보 조화. 옛날에는 명동성당 영안실이, 들어가는 길에 자갈이 있고 나무도 많은 데다 비탈길이었어요. 그 비탈길에 도로까지 조화가 가득했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승택 노동청장이 호상을 하는 장례를 치렀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희는 장례식장에는 안 갔는데 전태일 친구는 갔죠. 가족들은 당연히 가야 하고요. 그리고 최종인이나 몇 사람들은 구류 살고 나왔던 상황이라 수습 과정에 관여를 못 했기에 더 장례식장을 가야 했죠. 우리는 20일에 서울대 법대에서 추도식을 거행했어요. 그때 각 대학에서 몇 명씩 왔어요. 제일 많이 온 곳이 서울대학교 문리대, 그다음에 이대, 연대예요. 제가 평소에 관계를 잘 맺었던 곳이죠. 추도식을 할 때 경찰과 상당한 각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대학생연합 이름으로, 실제로 제가 전국에 대학생들을 다 아니까 추도사를 발표했는데, 추도사를 쓴 사람은 임종률 씨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중노위 위원장도 했어요. 그분이 똑똑해요. 글도 잘 쓰고, 저한테는 선배입니다.

그 사건에서 정말 조영래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뒤에 평전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학생운동, 학생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제가 있었고, 조영래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기자들이었어요. 저는 군대에 갔다 왔지만 조영래는 졸업했거든요. 특히 기독교, 그때 서경석과 원종연이라고 있어요. 당시에 새문안교회가 대단했어요. 또 오재식, 권오경 목사가 있었어요. 그 때 종로5가가 기독교가 막강할 때였거든요. 조영래는 그런 계통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조영래는 친구들이 기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계의 개신교 목사들, 신부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조영래가 또 돋보이는 것은 글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조영래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웃음) 솔직히 말해서 법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시험 치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몇 문제 달달 외워 시험을 쳤죠. 법전을 읽은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데 조영래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관심을 받잖아요. 그러니 조영래가 어디 가서 노동운동 하면 금방 탄로 나죠. (웃음) 그래서 조영래가 마지못해 대학 졸업 후에 사법시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죠.

저는 군대 제대 후 조영래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일산 용구암으로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중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웃음) 그때 저는 직업 운동가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조영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저와 붙어서 살 정도니. 전태일 사건이 났을 때는 아예 용구암에서 내려와 전적으로 그 일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태일 운동을 의미 있게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수호 어머니와의 만남이, 삼일다방 첫 만남에서 어머니가 할 이야기를 다 하시긴 했는데요. 이후 장례 과정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 의논했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장기표 매일 만났어요. 청계노조 결성된 게 11월 27일인가 그래요. 그러다가 최종인하고, 그 사람들이 구류를 살고 나왔어요. 그때에는 최종인이 누구인지 전태일 친구가 누구인지. 그냥 어머니가 소개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났죠. 나이가 먹은 사람도 아니고 모두 20세 어린애들이었죠. (웃음) 그런데 최종인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최종인은 법대에서 학생총회를 할 때 불러서 연설도 시켰었어요. 그 후로 거의 매일, 전태일 집에서

도 만나지만 하월곡동 대지극장 있는 신일고등학교 근방 다방에서 거의 이틀이 멀다 하고 만났죠.

이수호 장례식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표 네. 청계노조 결성할 때까지요.

이수호 어머니하고 계속 만나신 거죠?

장기표 네. 굉장히 자주요.

이수호 특히 그 무렵에 법대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관제를 치렀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어떠셨나요.

장기표 그때는 장례 치르기 전까지 어머니를 못 만났어요. 경찰이 병원 영안실을 장악했는데 저만 도망갔지, 다른 법대생들은 동대문경찰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때는 날이 추웠어요. 그리고 대학이 11월 중순 되면 학생들이 학교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장례 치를 때까지는 어머니를 못 만난 채 그 상태로 진행되었죠.

이수호 네. 그럼 어머니께서 8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장례를 마친 후에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하신 역할이나 어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세요.

장기표 제가 세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조합 결성을 인정할 것이냐 등이 있었어요. 거

기 평화시장주식회사 사장이 있어요. 처음에는 약속과 다르게 이리저리 회피하며 안 지키니 다시 한 번 석유통 가져다 놓고, 전원이 다 죽겠다고 해서 결성되었어요.

이수호 늘 하는 수법이죠.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장기표 그리고 이영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노동부 장관도 하셨는데요. 이영희 씨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노동조합에 들어갔어요. 아마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전후였을 거예요. 저희 사회법학회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옛날에 최일호 씨가 계속 관여했듯이요. 그래서 제가 이소선 어머니에게 이영희 선배를 소개해서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지도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늘 배가 고팠잖아요. (웃음) 조합원들이 배고프면 중국집에 데려가서 밥도 사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인이나 승철이도 이영희 씨를 잘 알아요.

이수호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이후에 청계피복노조가 설립되었죠. 그 과정이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장기표 선생님은 그때 계속 같이 계셨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머니는 분신했거 이전까지는 평범한 주부였다가 분신했거 이후에 확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장례 기간 또는 청계피복노조를 만들 때 어머니의 모습이나 행동 중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장기표 청계노조설립 후부터 청계노조에서의 활동은 다음 자리에서 전태일 친구들이 주로 이야기할 건데요. 실제로는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웃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어머니께서는 전태일 사건 나기 전에 동네에서 직함 없는 반장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별말이 없는데 쌍문동 208번지, 거기가 전태일 집이에요. 거기는 남산동에 케이블카 있는 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불이 나서 집단으로 이주하여 사는 곳이에요. 본래는 방학동 건너편으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공동묘지 옆이 쌍문동 208번지인데 한 30호 정도 돼요. 그 동네에서 일이 생기면 모두 이소선 어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집 아저씨가 지방 어디 마산인가에서 객사했어요. 객사했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아저씨 부인이랑 이소선 어머니랑 마산에 가서, 남의 남편을 염까지 하고 장례를 치러 줬어요.

그 외에도 동네가 워낙 가난하니까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이야기해서 밀가루라도 타다 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소선 어머니 성품은 전태일 분신했거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이수호 전태일이 엄마의 여러 가지 성품을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웃음)

장기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전태일이 노동자를 비롯한 이른바 하빠리 인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자기 엄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는 전태일에게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해 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돋보이는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랬는데도 절대로 정의롭지 않은 일, 남의 것을 훔쳐 먹거나 거짓말하거나 예의 없게 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특히 전태일과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았어요. 밤에 자면서도 소곤소곤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도 야단을 칠 때는 따끔하게 야단칩니다. 이소선 어머니

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느 잡지에 이와 관련해서 글을 썼었어요. 저는 예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큰 사랑, 사명감을 가지게 한 것은 예수의 어머니 영향이 컸다고 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바로 ‘가나 지방에서의 혼인 잔치’죠. 예수가 자신의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요청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죠. 이처럼 예수의 이웃 사랑, 민중 사랑, 인간 사랑의 의지와 실천이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듯이 저는 전태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덧붙이면 예수가 뜻을 펼치는 데 그의 어머니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특히 어머니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전태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성모로 추앙받아 마땅하듯이 전태일 어머니도 성모로 추앙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전태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이소선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3.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 과정의 인연

이수호 다음은 선생님께서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기의 기억을 듣고자 합니다. 영결식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열사의 친구들 및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많은 노동자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과정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이와 별개로 선생님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계피복노동조합 및 운영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인상적인 기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조합 및 운영이나 활동 노선에 대한 조언, 혹시 어머니와의 견해차가 있었는지. 다음은 어머니가 일상에서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나 벗처럼, 또는 동지처럼 대할 때도 있고. 그리고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 의미나, 일상에서 바라본 어머니의 성품과 관련된 일화들이라든지.

그리고 수배 중일 때 기억에 남는 어머니와의 일화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다른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수배 중에 어떻게 연락을 했고, 은신처 마련 방법, 형사를 따돌리는 어머니의 여러 가지 기지 등 그런 이야기. 특히 민청학련 재판 때 어머니의 행동에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감옥에 가시잖아요. (웃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표 말씀하신 대부분이 책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어머니하고 노동운동 관련 활동은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제가 징역을 오래 살았습니다. 수배 기간도 길었고요. 징역 살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징역 살 때도 저는 별나게 살았어요. (웃음) 그건 생략하고요.

수배 중에는 어머니와 항상 만났어요. 끊임없이 만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뜻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항상 남한테 배워서 한다고 말해요. 저에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배워서



장기표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인 전태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해방 세상을 위한 한 운동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소선 사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세요. 타고난 운동가예요, 타고난 인간해방 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가 사회과학적으로 이론적 지식이 있어서 (웃음) 어떨 때는 제 말을 경청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청계노조 자체가 그랬어요. 청계노조가 전태일의 위대한 사상에 기초했기에 누가 하더라도 노동운동의 대의에 맞게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다 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일호 씨가 연합노조 지도위원이라서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성품이 좋아요. 그분이 청계노조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웃음) 아주 착한 분이예요. 그러나 저는 그분과는 전략적으로 생각이 달랐어요. (웃음)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고정 처리’라고 했어요.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는, ‘고충 처리’라고도 하죠. 그런 일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중부시장에서 일도 했었는데요. 수배 중인데도 솔직히 청계노조에 깊이 관여했죠.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요. 제가 『우리나라 근로자 실태와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책도 썼어요. 『인간시장』이라는 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 책들이 평화시장에 돌아다녔어요. 교도소에서도 ‘전태일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소책자로 돌아다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노동운동의 방향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 이소선 어머니는 저에게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첫 번째는 노동운동은 고충 처리, 개인 문제로 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쟁해야 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거지, 자선사업 하듯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개인 문제 처리가 축적이 되어서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전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임금을 받아 주는 것만 투쟁이 아니죠. 이런 걸 보고

경제 투쟁이라고 하죠. 즉 경제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해야 해요. 정책이나 정치권력과 관련지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안 써야 하는 말인데, 불법 투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노총 중심의 합법 투쟁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하면 순치되게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청계노조에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전태일 친구들이나 어머니가 제가 사심이 없으니 전폭적으로 신뢰해 줬죠. (웃음) 그렇게 서로 잘 소통되어서 청계노조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재야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계노조를 통해서 재야운동을 추동하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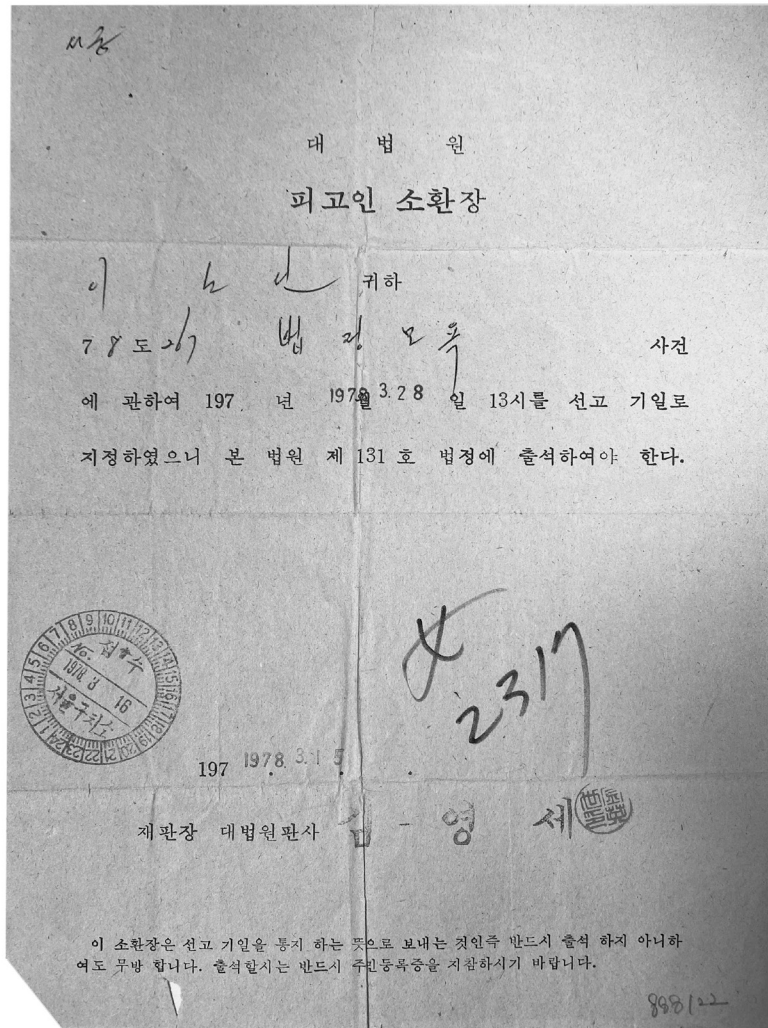
이수호 전략적 기지. (웃음)

장기표 그럼요. 전략 단위이기도 하지만 전략적 침로를 여는데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84~85년도에 운동이 침체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9·19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계노조사에서 진짜 빛나는 투쟁입니다. 대단한 투쟁입니다. 정말 청계 노동자들이 생명을 걸고 투쟁했어요. 9·19 투쟁, 10·2 투쟁, 그 이듬해 4·12 투쟁은 노동운동 차원에서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재야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한 기폭제가 되었어요. 특히 9·19 투쟁은 1983년인가 1984년(1985년)인데요. 노학연대 투쟁의 전형이잖아요? 동대문 바닥에 학생과 노동자하고 어우러져 있는데 굉장했어요. 이런 게 제 목표 아닙니까? (웃음) 청계노조와 특히 이소선 어머니가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제가 지도를 한 것이 아니라 청계노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태일 정신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조가 굉장히 잘 맞았죠. 저도 거기에 일조했죠.

이수호 큰 흐름과 정신을 잘 잡아 주셨는데요. 그사이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걸핏하면 감옥 가고, 수배당하고, 수배되어서 몰래 만나고. 선생님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 가서 재판받을 때, 어머니가 재판장에 가서 소리 치시기도 했는데요. 어머니와 관련된 이런저런 구체적인 일화를 말씀해 주세요.

장기표 재판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구속돼서 재판에 간 것도 전태삼과 민종덕을 만나다가 걸렸어요. 중앙정보부가 그걸 미행해서 잡혔거든요. (웃음) 전태일 동생 전태삼과 민종덕을 제가 자주 만났어요. 저희는 절대 변화가에서 안 만나요. 종암동 어디 시장통에서 만나는 데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성동구치소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우리 집이 석관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지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때 청계노조 사람들이 많이 왔죠. 청계노조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특히 공덕귀 여사 그리고 재야인사들도 많이 왔어요. (웃음) 검사가 뭘 묻는데 “근로자를 왜 만나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머니가 “말 되는 소리를 해라. 근로자 만나는 게 왜 문제냐?” 하면서 소리를 쳤죠.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경고를 몇 번 받았다가 법정모욕죄로 구속되었죠.

우리같이 책을 읽는 사람은 징역이 덜 힘들어요.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책을 가까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저는 징역을 오래 살았기에 꽤 알고 있잖아요. (웃음) 사람들도 많이 겪어 봤고.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다 인간은 인간이니까요. 대단한 영웅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인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청계노조에서 어머니 석방을 위해 9·9 투쟁을 준비하죠. 그 투쟁으로 이숙희, 신순애, 임○○, 신광용, 김주삼이 모두 구속되었죠. 이 사람들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재



피고인 소환장 <이소선 법정모독 사건 관련>, 1978, 전태일재단

판을 받는데 특히 이숙희가 너무 말을 잘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감동시킨 일도 있었죠.

이수호 어머니가 계시던 쌍문동 208번지에 살면서 그 집이 본거지가 되었는데요. 최종인, 이승철, 김영대 등 다 같이 살았었죠. (웃음) 그럴 정도로 어머니 중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중요한 분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것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장기표 그건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전태일이 죽고 난 후에 이소선 어머니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가족들은 모두 개인의 삶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할 때였죠. 그래도 마음 아픈 일이죠. 특히 순옥이 같은 경우는….

이수호 그렇죠.

장기표 순옥이와 순덕이는 작은 방에서 자지만 최종인과 이승철, 나머지 식구들이 그 집에 있는 다른 방 하나에서 다 같이 자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없죠. 시설이 반반하지도 않은데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전태일 집안은 노동운동에 다 갖다 바친 거죠. 심지어 윤매실 씨 그러니까 전태삼 씨 부인까지도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저는 80년대 초에 수배 해제되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원이 아빠’라고 해요. ‘형’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요. “하원이 아빠, 같이 살자”고 했어요. 거기는 30호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무허가 집이에요. 저도 다른 데 가 봐야 살기 어려우니까 9평짜리 집을 구해 함께 살았죠.

80년대 초반에 경찰에서 거기에 감시초소를 세웠어요. 어머니도 있고

저도 거기 있으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문익환 목사, 김대중 선생 등 주요 인사 집 근처에 감시초소를 지어 놓고 행사가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못 나오게 막아요. 저는 경찰이 막는다고 해서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웃음) 그때 또 김영대가 거기에 살았어요. 김영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차에 막 올라타고, 잘못하면 사고 날 정도의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수호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소선 어머니하고 장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나요?

장기표 이소선 어머니는 1929년생이고, 저는 1945년생이에요. 16살 차이예요.

이수호 호칭은 주로 ‘하원이 아빠’라고 많이 부르셨고, ‘형’이라는 호칭은?

장기표 회의할 때에는 ‘형’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종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요즘이야 형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형’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이수호 어머니가 장 선생님을 좋아했죠. 존경하고 굉장히 의지하면서 거의 절대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장기표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수호 여러 가지 말투나 태도 등이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장기표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고, 정보도 전국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볼 때 제가 사욕이 없죠. 사욕도 있을 게 없어요. (웃음) 사욕을 부릴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 어머니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이번에 인혁당 재판하는데요”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 내가 가야 하는구나”라고 하시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게 없었어요. 목요기도회라든지 풍천화섬 문제라든지 심지어 한참 후지만 박영진 사건 때에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당신께서 알아서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의견 차이가 없었어요.

청계노조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 40년이잖아요. 40년이니 얼마나 많은 곡절이 있었겠어요. 특히 서노련 사건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중에 제가 어머니 다음으로 제일 선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상황이 종종 있었긴 해요.

이수호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보면 어머니가 의외로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잖아요. 과감하게 자른다거나 품을 때는 품거나.

장기표 마침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것도 참. (웃음)

이수호 자기 자랑이 될 것 같다고 말 안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해주세요.

장기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는 서노련(서울

노동운동연합) 사건 같은 상황이죠. 김문수도 평화시장에서 오래 일했어요. 또또(단추)라고 해요. (웃음) 또또도 치고, 재단도 배우고…. 옛날에 거기 터미널이 있었어요. 창신동, 현재 동대문역 근방일 거예요.

이수호 거기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거기 있었죠.

장기표 김문수가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도 하고 서노련 활동도 해서 서노련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너희 때문에 노동운동 망치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그 과정도 복잡했어요. 청계노조가 거의 반분되다시피 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개네들도(서노련) 악의는 없었지만 어머니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저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어머니가 맞다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하원이 아빠가…”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작용했을 것 같아요.

4. 『전태일평전』 출간 과정

이수호 자연스럽게 평전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전태일평전』 출간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태일평전』은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의 일기 및 수기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집필했죠. 한 시대의 변혁을 이끈 문제적 저작인데요. 평전이 가진 폭발력만큼이나 책이 나오는 과정 또한 지난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었고, 저자 이름도 오랜 시간 동안 가려져 있었죠. 선생님도 이 책 출간에 무척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평전 출판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전태일 일기와 수기의 복사 과정 및 어머니와 인터뷰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지, 전태일 생애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인지, 전태일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훼손 위험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또 다음으로 집필 과정에서 조영래 변호사와 있었던 인상적인 기억이 있는지, 예컨대 집필 제의와 수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기획은 장 선생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비롯해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의 일화, 집필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했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기표 조금 뒤에 전태일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노동운동의 아주 위대하고 거대한 길잡이이자 사표(師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태일이 쓴 일기와 수기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만약 전태일이 일기나 수기를 남기지 않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를 쉬게 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고 죽었다면 저희가 그 말들이랑 이소선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전태일은 어떤 인물이었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자칫하면 소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전태일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요. (웃음) 이소선 어머니도 그래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완벽한 작품이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전태일평전』을 비롯해 전태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전태일 자신이 쓴 일기와 수기가 굉장한 뒷받침이 되었던 거죠. 전태일이 안치된 처음에는 문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 부조 받을 때 방명록에 서명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적을 곳이 없어서 전태일 수기 뒷장에다가 서명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노트 커버가 파란색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깨알같이 글을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지 말고 보관하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쫓겨 다니고 데모도 하러 다니느라 신경을 못 썼었어요. 1971년도에는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데모가 엄청났어요. 3백몇 명이 용산에서 머리 깎이고 끌려갈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못 썼었어요. 그리고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 그 후에 '71동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저는 얼마 있다가 1971년 11월에 구속이 되었어요. 조영래, 이신범, 심재권 그리고 제가 구속되어서 1년 2개월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났죠. 그때는 유신이 선포된 직후여서 학생들이 데모를 못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고3 애들 가르치면서 오전에는 전태일 평전 하나 써야겠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수호 직접 쓰시려고요?

장기표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평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71년에 데모하다 72년에 구속되고 그러면서 못 했죠. 그리고 출소 후에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죠. 오전에는 어머니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노트에 정리했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노트 2~3권 정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전태일이 남긴 일기와 수기를, 포이트라스라고 감리교신학대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박대인이에요. 그때는 복사가 어려웠어요. 복사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웃음) 서양인이거나 특별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복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이트라스를 만나 부탁해서 겨우 복사하게 됐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새문안교회 지하실 강당 비슷한 곳에서 복사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원본을 돌려드렸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한동안은 원본을 비롯하여 상당한 자료가 집 옆에 묻어 놓은 장독 안에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자료 없으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어요. 저는 자료를 어디에 보관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한번 잡혀가면 집을 몽땅 다 털어 가니까요. (웃음) 그런데 마침 동네가 독을 묻어 놓을 수 있는 동네여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죠.

제가 평전을 쓰려고 했는데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수배 중 아닙니까. 조영래도 수배 중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영래가 다른 것도 잘 하지만 글을 잘 써요. 또 제가 조영래하고 가까웠고, 그때 마침 조영래가 저보다 징역을 6개월 정도 더 살다 나왔어요. 그래서 출소를 한 후에, 제가 볼 때 조영래가 글도 잘 쓰고 저보다 생활이 나은 점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조영래에게 자료를 전부 다 넘겼어요. 복사한 자료까지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3년간이라 그랬어요. 그 책은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잘 쓴 것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이유는 그냥 좋은 책을 잘 쓴 것이 아니라 조영래가 전태일의 수기와 일기를 몇백 번 읽었어요.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일기와 수기를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서 녹여서 쓴 거예요. 조영래의 창작품이 아니라 전태일을 온전히 재현한 거예요. 이게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소설가가 소설 잘 쓰면 자기 소설이죠. 이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자료를 잘 알기 때문이고. 조영래 정말 수고했고, 잘 썼다! 제가 보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책이 좋다 하는 정도지. 정말 잘 썼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조영래가 본래 잘 써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영래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의논한 부분은 예를 들어 전태일이 자결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였어요. 초기에는 수사기관에서 전태일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비관하여 죽었다는 말이 떠돌았어요.

이수호 경찰들이 그렇게 몰아갔죠.

장기표 그런데 전태일이 왜 죽었나? 이것은 하나의 전설인가? 그

런데 전술이라 표현해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노동운동 하다가 안 되니까 죽었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태일은 계획된 죽음이에요. 그것은 결단이죠.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유서도 그냥 유서가 아니라 써 놓은 것을 보면 ‘굴리다 굴리다 다 못 굴린 돌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이런 내용도 그렇고. 특히 아까 말했듯이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죽었다고 하면 되겠나. 자기 죽음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각성과 분노와 단결과 투쟁을 촉구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 전술적으로 죽은 것이다, 하나의 전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조영래가 아파서 죽기 직전에 저와 대학병원에서 만나 수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전태일평전』 새로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수정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영래하고 의논했죠.

그리고 조영래도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전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평전이 나왔는데요. 조영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일본에서 저자 이름도 조영래 이름 한 글자, 제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실었어요. 조영래 할 때 영 자, 장기표 할 때 기 자 해서 김영기라고 했어요.

이수호 저는 장기표 선생님이 앞에 있어서 영기라고 기억했는데

영기였군요.

장기표 초기에는 평전이 나왔을 때 다들 장기표가 썼다는 소문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징역을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 교도소에 있어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조영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절대로 자랑삼아 말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소했는데, 마침 책 개정판이 나오게 됐을 때 발문을 쓰면서 조영래 저작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런데 책이 나오기 며칠 전에 조영래가 죽었죠. 그래서 제가 글 끝에 조영래의 겸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을 절대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기 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이수호 1990년에 돌아가시고, 1991년에 조영래를 밝힌 개정판이 나왔죠.

장기표 1990년 12월 12일예요. 조영래 죽은 날이.

이수호 평전을 쓸 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쓴 일기, 수기, 소설 초안 등이 자료로 잘 활용되었죠. 그다음에 어머니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장기표 어머니는 연대기 순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친정어머니가 개가한 곳에 따라가서 의붓자식으로 설움 받은 일이나 정신대 끌려갔다가 공장에서 일했던 일 등등은 제가 어머니에게 매일 오전에 듣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죠.

이수호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선생님이 다 하시고. 그 기록물을 종합해서 조영래 변호사에게 넘기고, 조 변호사님이 그걸 소화를 해서 자신의 필체로 만드신 거네요. 두 분의 공동저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장기표 아니에요. (웃음) 그건. 어차피 그런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나와서 그렇지.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했네요. (웃음)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조영래가 알기가 어렵죠. 그때 조영래도 수배 중이라서요.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수호 어떨 때는 어머니가 변장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장기표 그사이에 제가 절에서 중 생활을 했어요. (웃음) 그러다 올라와서 중부시장에서 1년 동안 있을 때인데요. 그때가 1975년, 1976년도였어요. 김혜숙, 이숙희, 민종덕, 이런 사람들과 많이 만날 때예요. 제가 하남공고 앞 신당동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어요. 평화시장이 가깝잖아요? 어머니가 자주 오셨죠. 1974년도 민청학련 사건 이후에 1975년도 인혁당 사건 등 이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그때 재야투쟁이 많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해위 윤보선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그 윤보선 씨 부인 공덕귀 여사가 대단한 분이예요. 노동자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사실 공 여사가 성문밖교회에서 해태제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농성장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진짜 노동자들의 참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인식이 없다면 저런 기도를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김한림 여사와 그런 데 많이 다니고 할 때 저와 자주 만나서, 자주 정도가 아니라 (웃음) 거의 매일 만나서 의논하고 그랬

어요. 그리고 당시에 청계노조가 말이 많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성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총명한 분입니다.

이수호 상황 판단도 참 잘하시고.

장기표 참 상황 판단은 뭐 두 번 말할 것이 없어요. (웃음) 매달리고 할 것이 없어요. 딱, 말 나오면 끝나요. 총명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정말 이사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한 예로, 어머니가 노동자대회에 가면 유가협 대표로 나서서 연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유가협 어머니들을 다 단상에 올라오게 했어요. 또 어찌다가 상을 받으면 “나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다 같이 주는 상이다”라고 하세요. 솔직히 민주 열사나 노동 열사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태일이 오래됐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티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낮추려고 큰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타고난 겸손이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5. 이소선 사상

이수호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생전에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기표 나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웃음)

이수호 네. (웃음) 하여간 그렇게 부를 정도로 서로 좋아하고 공경한 사이였는데요. 그만큼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사상에는 선생님의 생각이 깊이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소선 어머니의 삶에 대한 평가와 이소선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판단 등. 어머니께서 떠나신 지 10년이 되셨잖아요. 지금 드는 생각 등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의 제목이 ‘이소선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질문으로 잘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인 전태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해방 세상을 위한 한 운동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소선 사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소선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등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이소선 어머니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간 차별이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의붓자식으로 따라갔는데 하대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어릴 때 의붓자식으로서 엄청난 차별을 받은 것은 물론 여러모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서 오는 차별. 특히 전태일 수기에도 보면 어떤 부유해 보이는 아줌마가 우산을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곱팡이가 피었냐?”라고 하면서 도로 우산을 돌려줄 때 전태일이 “내내 도도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어찌다 한 구절 나온 것이 아니라 전태일이 살아온 삶이 다 그렇게 차별을 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차별 없는 세상을 바랐는데, 진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서로 인간적인 정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회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바람이 없었다면 이소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죠. 누구는 아들 없나요? 아들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소선 어머니가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운동 등을 했던 것은, 전태일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소선 어머니도 이루고자 한 것이고. 또 이소선 어머니가 저를 포함해서 운동권 사람들을 좋아한 것도 전태일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세상,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을 저희도 이루고자 하니까 저희를 좋아한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면 저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을 왜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태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소선 어머니의 사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태일의 경우는 이미 책에 있는 수기와 일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전태일이야말로 인간해방의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을 물질화하는 세대를 거부했죠. 그리고 덩어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돈, 권력을 가진 모든 덩어리를 없앴으로써 하빠리 인생이 없도록 하는 것. 전태일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부유한 자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배격했어요. 노예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태일의 수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이걸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정의하면 인간해방의 세상이죠. 인간해방의 세상은 인간이 다른 존재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해방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노동이 노예 노동이나 강제 노동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과정 즉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됨으로써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소선 어머니는 이런 내용을 저처럼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건

설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봐요.

특히 전태일의 말 중에서, 그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에게서도 볼 수 없던 말이 있어요. 그게 ‘그대들 전체의 일부인 나’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나를 아는 나와 나를 모르는 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예요. 저는 자신을 전체의 일부인 나, ‘그대들 전체의 일부인 나’로 표현한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보통의 사랑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 나부랭이들이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온몸으로 체화한 분들이 전태일이요 이소선 어머니고, 또 여기 평화시장에서 노동운동을 한 전태일 친구들, 그 외에 경숙이들도 많은데. (웃음) 장경숙이 이경숙이 많잖아요. (웃음) 지숙희 등 숙희도 많고.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끝으로 저는 운동권이고 나이도 많아서 청계노조 조합원이나 어머니에게 꽤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사실 가르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이분들에게서 배운 것이 엄청나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의 원천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똑똑해요. 중학교 나온 사람도 거의 없어요. (웃음) 그런데 대화해 보면 대학교 나온 사람 저리 가라예요. 우선 전태일이 그렇고, 이소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전태일 친구들도 그래요.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똑똑하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태일 수기 맨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감정에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환경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것을 관념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소선 어머니와 전태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 일이 있어

요. ‘고난에 찬 삶을 통해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얻고, 사랑의 헌신적 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지혜를 얻으며, 그 사랑, 그 지혜로 해방된 삶을 살았다’라고요. 전태일이나 이소선 어머니는 얼핏 보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자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수호 선생님도 잘 알다시피 이소선 어머니께서 연설할 때 보면 호랑이 같지만 (웃음) 평소에 만나 보면 얼마나 낙천적이셨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자신도 해방된 삶을 살았어요.

특히 이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보고 흔히 ‘저 사람들은 노동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웃음) 그런 이야기를 때로는 들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철학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해방된 삶이 즉 기쁜 삶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나 전태일이 이러한 사랑의 철학, 해방의 철학을 온전히 실천, 실현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참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태고 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장기표 한 가지만 보탤게요. (웃음) 저는 지금이야말로 전태일 사상을 구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인연을 맺은 전태일, 이소선 어머니, 청계노조,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이 황폐해졌어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태일 사상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에요. 민주노총은 정말 전태일 사상을 구현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아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운동 대의에 충실한 것이고, 전태일의 희생 때문에 세워진 민주노총이 전태일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문제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보다는 전태일 사상을 구현하는 일에 나서야 하고, 이것은 노동운동에서나 전태일 패밀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전태일 사상을 구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이, 학자들이 자신의 희생이 없이 만들어 낸 것 있잖아요? 희생 없이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태일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삶과 위대한 희생이 뒷받침되어서 우리나라 사상이라고 할 때, 훨씬 더 감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태일기념관이 전태일 사상을 우리 사회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수호 명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전태일과 어머니, 올해가 어머니 10주기고요. 함께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재단의 식구들, 전태일기념관도 만들어졌고, 전태일과 함께 살아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표 마무리하기 전에 전태일 사상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하자면요. 마침 민주노총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전태일 사상이 무엇이나? 특히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임금인상 요구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굳이 이념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 운동이에요. 그것도 이기적 자본주의 운동이에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의 자아실현, 말하자면 전태일이 말한 즐거운 노동, 노동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노동운동의 목

표가 되어야 해요. 자꾸만 임금인상에 매달리면 안 돼요. 세상이 엉망인데 자신들의 임금만 인상된다고 해서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태일 사상에 의한 노동운동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전태일 사상이 뭐냐? 우선 전태일 정신은 옛날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못 사냐에 대한 각성, 분노, 단결, 투쟁인데요. 지금은 전태일 정신을 말할 때가 아니라 전태일 사상을 구현해야 해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태일 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태일과 인연을 맺은 평화시장의 노동 형제들은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처럼 생명을 걸고 투쟁하지 않아도, 아무래도 지식인이다 보니까 (웃음) 이런 데 나와서 말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 내 청춘』이에요. 만약 『청계, 내 청춘』이 없었다면 전태일과 관련해서 이소선 어머니나 친구들 그리고 저 같은 몇 사람들만 청계 노동운동을 했던 것으로 비쳤을 텐데 『청계, 내 청춘』에 이경숙이 정경숙이 (웃음) 이숙희 등등 그 사람들이 몇 페이지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계, 내 청춘』이 나오게 된 게 아주 좋아요. 무슨 말이나 하면 전태일이나 청계노조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거기에 기여한 공이 매우 커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인간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괜히 전태일과 인연을 맺어서 징역 살고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고만 생각하기보다 굉장한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각계에서 잘 살고 있어요.

끝으로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전태일이라는 사람 이름이 온전 전, 클 태, 한 일 자입니다. 온전히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이름 그대로 전태일 가족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죠. 어쨌든 전태일과 인연 맺은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호 작가님이나 출판사에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나, 미비한 것 보충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김대현 선생님의 말씀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사랑의 실천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오래전에 남겨 놓으신 옥중수기를 보다가 비슷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 부분을 선생님 육성으로 듣고 싶어서 메모해 뒀어요. 가능하시면 말씀과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있을까요?

장기표 저는 전태일은 살아서는 못 봤지만 이소선 어머니나 전태일 친구들 그리고 평화시장에 있는 노동 형제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다 똑똑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거나 겨우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이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사물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을까, 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생활, 어렵고 고난에 찬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주눅 들지 않고 함께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또한 개인적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똑똑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사랑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저로서는 다행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전태일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렇지만 배운 것도 별로 없죠. 돈도 없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죠. 그래도 아

무리 어려움에 직면해도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높은 이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태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전태일을 보면서 가장 존경스럽고 특이한 것은 ‘모든 사람의 약점은 희망하는 것이 적다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이 적다는 것을 보면서 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희망하는 것이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높은 이상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켜 나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건데요. 제가 오죽하면 책에 기구한 삶이라고 했겠습니까. 남의 삶에 대해서요. 더구나 제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기구하다는 것은 약간 예의에 어긋나요. 되도록 그런 말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이소선 어머니의 기구한 삶은 예비되었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소선 어머니 삶은 전태일은 저리 가라예요. (웃음) 때로는 정신병도 걸리고, 가슴앓이 때문에 여름에도 기왓장 가슴에 얹어 놓고 살고, 눈도 안 보이고, 밥도 얻어 먹으면서 살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의 찬 삶, 그 기구한 삶을 통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인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의 헌신적 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지혜를 얻은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교훈을 어머니의 삶이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관련된 일을 한 가지 보태면요. 아까 이사장님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배웠다고 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짜 모든 사람에게 배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배웠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소선 어머니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책의 제목을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라고 했겠어요. 장례식날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호상을 맡았잖아요.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장례에 온 사람들 또는 국민에게, 오지 못했지만 인연 맺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고맙습니

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문장을 잘 써서 정말 여러 번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소선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지금도 하실 거예요. (웃음)

이수호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선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고 쌓아 오신 벼이자 동지인 장기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겨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행적이 후대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장기표 전태일 동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4년밖에 못 다녔어요. 고등공민학교, 그게 중학교 과정인데요. 청옥고등공민학교도 1년도 못 다녔습니다. 그게 학교 공부의 전부인데도 그토록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회와 역사 또 인간과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한다면 책을 보고 공부하기보다 이웃을, 인간을, 진실을, 정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책 100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단 한 건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를 더욱더 지혜롭게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장기표, 이수호

2부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이소선 정신

인터뷰 2회차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15:00



왼쪽부터 박계현, 이수호, 이형숙, 황만호

1. 어머니와의 만남

이수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술을 통해서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는 제3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머니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던 전태일기념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태일기념사업은 전태일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미래세대로 확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생전에 어머니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과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이소선 정신’이라는 주제로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황만호 선생님, 박계현 선생님, 이형숙 선생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들 모두 전태일기념사업과 관련해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근황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념사업회에서 일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숙 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가 개봉한 11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상근했습니다. 그 후 기념사업회 이외에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도에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박사 논문을 마치고 강의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형숙입니다.

이수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하게 기념사업을 업으로 삼

으셨네요. (웃음)

황만호 이형숙 동지가 그만두고 난 후에 전태일기념사업회 실무로 일하는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요. 2004년 즈음부터 저보고 계속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2004년 말인가 2005년 초인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들어가서 2007년, 2008년 3년 6개월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원래 제가 재봉사예요. 지금은 그 기술로 의류봉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만호입니다.

박계현 저는 황만호 동지 퇴임 후에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200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만 13년인가 14년째 되던 해에 그만뒀는데요. 기념사업회에 2년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재단으로 전환이 되어서 재단에서는 11년 정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재단에서 수탁을 받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을 붙들고 전태일과 함께 자기 생의 중요한 부분에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사실 근무하실 때 이른바 급여라든지 처우가 안정되지도 않았고. (웃음) 아니할 말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봉사 겸 희생하며 일하셨는데요.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마음이 짝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럼 먼저 전태일 정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소선 어머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억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머니와의 인연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경로로 전태일 정신을 접하고 각자 사회운동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중

요한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분의 삶이 그렇듯 시대 상황과 맞물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어머니를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 및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전태일기념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전태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였고,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두 번째로 청계피복노조 및 전태일기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권유를 받았든지 자발적인 것인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 각오 등. 세 번째는 처음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정황과 기억들. 어머니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나 어머니와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아직도 잘 안 알려진,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털어놓겠어요? (웃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숙 저는 학생운동을 하니까 전태일 열사를 당연히 알게 되었는데 되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노동운동 현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언저리에서 활동했었어요. 제가 199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때 전태일 열사를 알게 되고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상처 받고 힘들었을 당시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개봉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5천 명이 후원도 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요. 실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기념사업회의 모든 역량을 영화에만 쏟아부었어요. 노동상이나 문학상 등 기존에 있던 사업은 거의 중단되었고 실무자도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업회에

갔을 때는 한 달만 아르바이트하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웃음) 영화 개봉하고 바쁘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상근이라고 했으면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제가 그 당시에 상처도 받았는데 한 달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수락했죠. 일하면서 평전도 읽고 하다 보니 언니들이 꼬시잖아요. (웃음)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책을 보기도 했고 또 어머니의 활동을 보니까 날카로우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포근하게 ‘고생 많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말투가 처음 만나면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포근함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웃음) 처음에 만났을 때 포근한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웃음)

이수호 이제 그렇게 말문을 여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권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누구신가요?

이형숙 제가 지오세(JOC)라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할 때 70년대 노동운동 했던 박순희 언니도 있고, 정인숙 선배님, 이충각 선배님 등이 계셨어요. 특히 정인숙 선배님이 저에게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웃음)

황만호 저는 어머니를 먼저 봤다고보다는 저 자신이 살아야 하니까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었는데요. 우연히 청계노조 부녀부장을 했던 김혜숙 누님 시다를 하게 되었어요. 그 누님이 워낙 따뜻했어요. 그때 제가 16~17세 정도로 나이도 많이 어렸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잘해 주니까 그 누나가 좋아서 그 누나가 가는 데 가 보고 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노조 사무실도 찾아가 보고, 을지로6가 유림빌딩에 노동교실이 있었는데

데요. 거기에 가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 아래층에서는 공부한다고 해서 시간 나면 가서 보고, 그러다가 어쩌다 어머니를 한번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청계노조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8년도였던 것 같아요. 노조 활동을 하면서는 조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죠. 이야기를 더 하게 창동 가자고 하면 어머니 집에 따라가서 밥도 얻어먹고 이야기하다가 잠도 자고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하기도 했어요. 그때 어머니를 뵈었을 때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밤늦게 가도 저녁 먹었냐고 물으면서 챙겨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청계노조가 1980년도에 강제 해산되고 노조 해산에 대한 항의로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아프리·AAFLI)’에서 농성하다가 구속되었죠. 그런 후에 나와서는 노조 복구 활동을 했죠. 노조를 복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지만 워낙 엄혹한 시기다 보니까 또 구속되고 그랬었죠. 이야기가 긴데요. 요약하려고 하니 힘드네요. (웃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과 후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모든 내 삶이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처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따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1987년도에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었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민중덕 선배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일을 하자고 강요하는 바람에. 당시에 제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었어요. 개인택시를 팔고 전태일기념사업회에 들어가서 사무국장을 하고, 사무국장 하면서 이형숙 동지가 해 왔던 일을 인계받아서 열심히 했어요. 전태일 거리를 만들자고 선언한 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전태일 기념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정도까지였구나 생각하고. (웃음) 그러면서 그만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황만호

평소에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아들의 뜻을 이어받고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이 맞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지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박계현 저도 황만호 동지나 어머니와 관련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는 1979년도 즈음에 노조의 대의원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1978년도까지는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전태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부시장에서 재단사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재단사 모임을 구성했어요. 재단사들끼리 모여서 창동 어머니네 집으로 가게 되었죠. 황만호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가면 늦어요. 9시에 일 끝나고 가면 10시쯤 되는데요. 밥을 참 잘 챙겨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밥 생각이 많이 나요. 어쨌든 늦게까지 이야기를 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감흥이나 그런 건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노조가 강제 해산되고 아프리(AAFLI) 사건으로 20여 명이 잡혀가고 10여 명이 구속되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저희를 6일 정도 불법적으로 감금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니가 5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희를 보는 눈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저희도 어머니를 보자마자 가슴속에서 울컥한 무언가. 그리고 어머니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웃음) 결국은 저희도 구속되고, 어머니도 구속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뒤로도 저희가 노동조합 복구 대회를 하는 동안 활동비를 거의 못 받았죠.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데요. 상근하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잘 못 먹고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오시면 항상 밥을 사 주시던 기억이 많이 나요. 어머니도 어렵게 사시던 분이었고 저희가 어렵게 활동해서 그런지 먹는 것을 잘 챙겨 주려고 하시지 않았나 해요.

그리고 이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또 있어요. 87년도 이석규 열사가 대우조선에서 근무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민중덕 선배 이렇게 셋이 옥포에 내려갔어요. 5일 동안 있었어요. 당시 노동조합에 조합원은

많은데 노조가 막 생길 때라 제대로 된 기틀이 다져지지 않아서 위원장이 나 간부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의된 내용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어요. 어머니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잘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결국 5일째 장례식 치르던 날 영구차에 관만 실어서 보내고 나머지는 가로막았고. 항의하던 노무현, 이상수 변호사가 그 건으로 구속되게 되죠.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등성이를 넘어서 이동했죠. 잡히면 구속되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산에 진입하고, 마산에서 대구까지 택시 타고 다시 안양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어머니가 다 주도하시고 여비도 마련했어요. (웃음)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여비를 챙겨 주셨어요. 어쨌면 그렇게 결단력이 빠르고,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호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로 70년대 말 80년대 들어서면서 전태일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같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하여간 어머니가 잘 챙겨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밥을 맛있게 해 주시더라. (웃음)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제일 급하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통해서 인간다움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 형숙 씨 얘기처럼 말씀은 많지 않더라. 그 와중에도 무언가 일을 주도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 어머니와 관련된 개인적인 추억도 좋고 어머니께서 인간적으로 잘 챙겨 주시고, 또 일의 전체 흐름을 잡고 항상 중심에서 애쓰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화라든지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화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어머니의 자상함과 엄격함 그런 내용들.

황만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는 평소에는 말씀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하고자 하는 것, 생

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봐 왔죠. 청계피복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전태일 친구분들을 중심으로, 전태일의 유지를 받들어 내 친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얼마 전 책자에서도 많이 보고 이야기로도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70년대 무렵에는 그러한 아들과 같은 전태일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태일의 친구들과 반대편에 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중견 조합원들과 함께했던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청계노조 위원장을 했을 때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직접 대면은 못 했지만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를 기억해 보면, 평소에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아들의 뜻을 이어받고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이 맞는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지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활동의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많이 나고요.

제가 활동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어머니를 명절에 찾아뵈었어요. 제가 전태일기념사업회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기대야 하는 어머니였는데 나중에 뵈었을 때는 돌봐야 하는 어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방도 만들고, 어머니가 기력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석규 장례식에 참여한다든지 부산 한진중공업 갔던 이야기들.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봉고차를 빌려서 어머니 모시고 거제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어머니 고향 대구 달성군에서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조금이라도 어머니 여생을 편안하게 해 줄 방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활에 치이다 보니 제대로 못 해 드린 것이 너무 미안해요. 요즘 생업으로 바쁘긴 하지만 쉬는 날만 되면 어머니도 뵙고, 태일이 형도 뵙고, 더불어 백기완 선생님도 뵙고 하는데요. 어머니 묘소에 솔가지 있으면 솔가지 다 드리내고. (웃음) 참 어머니 생각하면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고, 잘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수호 그렇게 자상하고 강했던 분이 언제부터인가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절실하게 들리네요.

황만호 제가 몇 번 와 봤지만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오늘 또 처음 새로운 걸 봤어요. 태일이 형 장례식 때 찍은 어머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고와요. (웃음) 우리보다 훨씬 어렸을 나이이고 어머니가 어찌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여의고, 아들이 죽어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수호 이형숙 선생님도 우여곡절 끝에 전태일기념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어머니 모시고 행사도 다니면서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텐데요.

이형숙 제가 상근으로 사무국장 시작했던 때가 20대 중반이었어요. 20세 넘은 여자아이였죠. 선배님들은 청계노조에서 같이 활동하니깐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 붙고 자연스러울 텐데요. 저는 사실 멀게 느껴졌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리고 불안 불안했겠어요. 기념사업회 일한다고 혼자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를 보셨던 것 같고. 당시 저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왔을 당시는 어머니가 기념사업회에서 행사할 때는 오시지만 관계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셨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머니와 정들 만한 일이 많이 없었어요. 팔순이나 칠순 잔치처럼 행사를 할 때 어머니를 많이 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저를 왜 부르셨을까 했어요. (웃음) 어머니가 제가 하는 걸 지켜보셨고, 제가 힘들 때나 혹은 잘 못 할 것 같을 때 어머니한테 여쭙보면 조언처럼 ‘어린 게 한다니 해 봐라’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어머니에게 애착 있게는 못 했었어요. 그러니 사실 저는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이 드셔서 돌봐야 하고, 사실 어머니는 선배님들이 사무국장 할 때는 의지를 하셨는데요. 제가 있을 때도 사실 힘이 드셨어요. 창동에 계셨고, 유가협에도 있었고, 법안 만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고. 제가 뵈을 때는 다시 나오셔서 여의도에서 400일 가까이 농성하고, 경찰들하고도 싸울 즈음이니깐요.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나아질 것 같았지만 더 힘든 시기가 오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어머니가 계속 거리로 나오셔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초반보다 더 많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저께 군대에 갔어요. 그 아이를 낳은 후에 만 날 때마다 만 원씩 용돈 주신 것도 기억이 나요. (웃음)

이수호 장기표 선생님하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이중적 모습이기도 하죠. 따뜻하고 인간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남성적인 단

호함 같은 모습이 있어요. 따님들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후에 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는 집안일을 전혀 안 하셨대요. 밥은 아예 안 하고, 순옥 씨에게 다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기도 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옆에서 많이 모시고 다니고, 그 무렵에 어머니가 연세도 많아서 실제로 부축을 해 드려야 했던. 한창 여러 현장이나 행사에 참여했을 때 보면 늘 계현 씨가 어머니 모시고 왔었죠. 어머니에게 연설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간단히 한다고 하다가 끝없이 할 때가 많은데 계현 씨가 악역을 담당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다 야단맞고 내려오고 했었죠. (웃음)

박계현 그런 일들이 꽤 많았죠. 지금도 집사람이 어머니를 보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80년대에 수배도 받았고, 구속도 되었고. 중간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요. 저희가 어머니 집 근처 창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종종 쌀은 있냐고 물어보고, 분유도 있냐고 물어보면서 챙겨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머니이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옥포를 간 것이나 순간순간 결단하고 추진하는 실천력은 또 아주 대단했어요. 그 당시 세 명이 있었죠. 저와 민종덕 선배 그리고 서울대학교생 김원봉이 있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한번 연을 맺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팔순 잔치 때 보면 손님들 스펙트럼이 기룡전자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뻗어 있고. 전태일과 관련해서 뭐라도 했던 분들은 어머니가 꼭 기억하고는 그분들에게 꼭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기룡이라든지 쌍용자동차라든지 어머니 모시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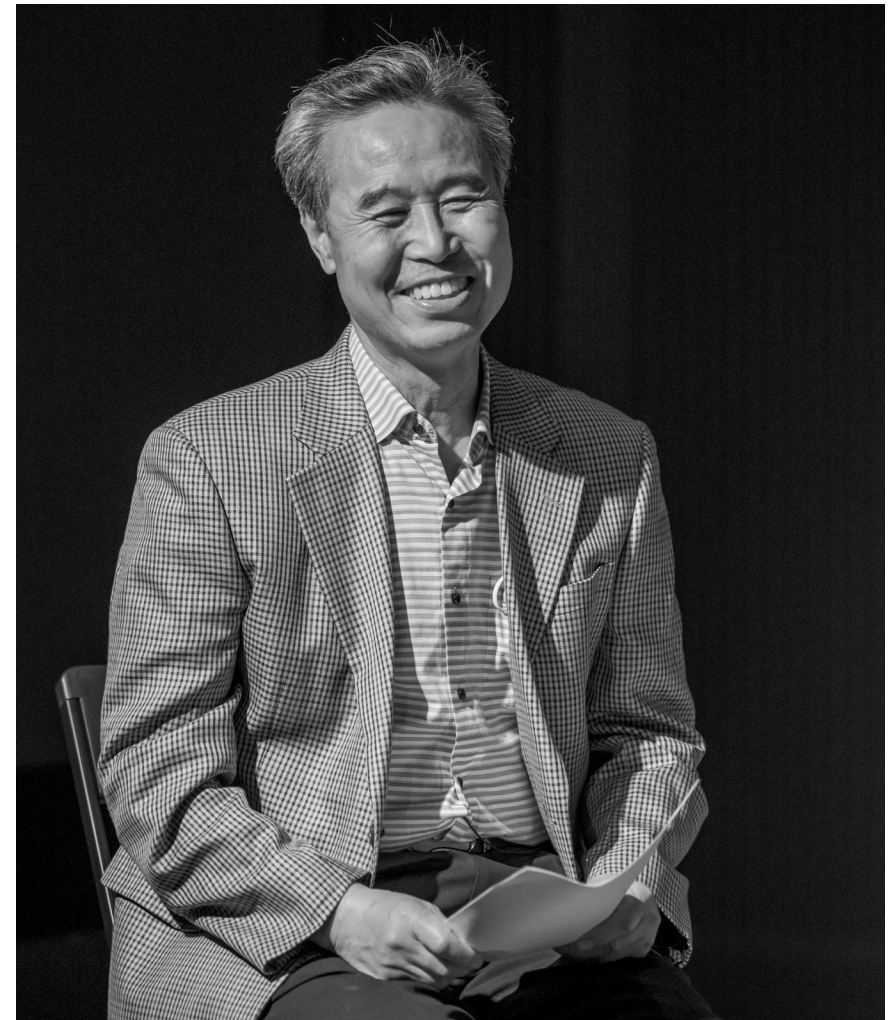
러 군데 갔었는데요. 그 시절에 화두가 기쁨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기쁨에 갔을 때 어린 노동자 동지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말을 많이 하셨죠.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별로 할 이야기도 없는데’ 하다가 시작하면 시간이 훨씬 지나 있죠. 연설 끝나고 다른 것을 해야 하는 데 못 하는 일이 있어서 그만하라고 하면 호 통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잦았어요. (웃음)

어쨌든 어머니는 보편적인 어머니이면서도 민중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은 매우 예리하고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나이 먹은 할머니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고스톱을 참 좋아하셨어요. (웃음) 나이 드시고는 유가협에서 고스톱 치고 계셨는데요. 그래 봐야 100원짜리로 치는데 몇천 원 잃으면 어머니가 단축키 한번 눌렀다가 그냥 꺼요. 그러면 제가 부재중 신호 보고 어머니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총장 어디야. 만 원짜리 놓고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놓고 가면 기세등등하시고 그랬어요. (웃음) 나중에도 저는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돌아가실 무렵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늘 고마워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재단을 오랫동안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순옥이 누나랑 같이 불리서 자기가 없더라도 순옥이 누나랑 상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이수호 노름 밀전을 잘 가져다주니까. (웃음)

박계현 그렇죠. (웃음)

이수호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일,



박계현

어머니는 보편적인 어머니이면서도 민중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은 매우 예리하고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말도 좋고, 싫은 내색을 한 일, 또는 칭찬받은 일과 관련해 말씀해 주세요.

황만호 별로 그런 것이... (웃음) 노조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6년도가 노동운동 격변기였죠. 그 시기에 저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70년대에 단위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서 연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노동운동연합에 함께하고, 연합의장이었던 민종덕 선배가 구속되자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바로 수배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서울노동운동연합의 방향 관련해 어머니의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과 관련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수배되어서 어머니를 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후 1년 정도 있다가 구속되고 나온 상황이라서 사실상 직접 부딪힌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돌봐야 하는 할머니라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고, 모시기 위해서 전태일기념사업회 1층에 어머니 사랑방을 만들었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어머니에게 식사하셨는지 묻는다거나 아니면 밥 달라고 하거나 또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형숙 저 사실은 어머니에게 쌍욕도 듣고요. (웃음)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아까 어머니랑 노동운동 관련해서 노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명예회복 시

기였기 때문에 유가족과 운동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활동가와 차이가 있던 시기였어요. 농성 과정에서도 법안이나 제도화라는 게 활동가들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유가족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에서 갈등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시기에 어머니는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유가족이 거리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역할이 저는 기념사업회 사업에 중심이 있었고, 어머니는 법 제도화하는 활동의 영역에서 농성하셨는데요. 이걸 같이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만들어졌을 때, 전태일 열사가 870만 원 보상금 지급이 되는 거였어요. 호프만식으로요. 그런데 어머니가 400일 넘게 유가족들하고 농성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철이 없었을 텐데요. 약간 소극적으로 ‘어머니 이제 역사에 두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머니한테는 명예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전태일이라는 사람, 여태까지 해 온 것들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제가 생각 못 한 거죠.

이수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형숙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념이나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머니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셨어요. 밤에 전화해서 막말까지 하셨거든요. (웃음) 그리고 그때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법안이 바뀌면서 어머니도 마음이 가라앉으신 거죠. 어린 제 마음에는 길게 봐야 한다는 철없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자

식, 전태일이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잖아요. 제가 그것을 잘 못 읽었지만요. 어머니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셨고, 법도 제정해서 결국 바꾸셨죠.

이수호 맞서기도 하고 그러셨죠. 또 박계현 총장님은 모시고 다니면서 에피소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칭찬받은 이야기는 하셨으니까요. 짜증을 낸 이야기나 꼭 자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모습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박계현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에 재단 만드는 일에 관여했었어요. 그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재산이 주로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날 불러서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다 이야기해도 되나요? (웃음)

이수호 네. 하세요. 다시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교정할 때.

박계현 그동안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어머니 개인 재산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기념사업회 것인데요. 기념사업회를 못 만드니까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해 놓은 자산들이 많았어요.

황만호 청계노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재산이었죠. 독일에서 오기도 하고.

박계현 노조 사무실은 미국에서 오고, 재단은 독일에서 오고 그런 자산들이 있었는데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한군데로 모아야



이형숙

저는 한 번도 이소선 정신과 전태일 정신을 분리해서 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해 오셨던 활동에는 이념이 없었어요. 무상의 연대 같은? 대가 없이 그냥 같이하는.

하는 거죠.

이수호 어머니는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박계현 그런데 그게 가족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시고요. 저에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너에게 표현 못 할 정도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단호하시고, 냉철하게 직관하셨고,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어머니에게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재단 만든 후에 얼마나 힘든가를 어머니를 보고 느꼈어요.

조금 전에 어머니의 실천과 결단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은 노조 몫으로 왔고 기념관 몫으로 왔기 때문에 재단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한 번에 결단을 내리고 그걸 추진해 간 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도 아무 조건 없이 해 줬다는 것에 어머니가 더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수호 자연스럽게 기념사업회 설립과 재단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만호 조금만 더 이야기를 보태자면요. 사실 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러한 자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형숙 씨가 일할 때는 사실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산이 만들어졌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인데요. 저희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청계천에서 인천까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남 가서 모이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조직

활동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신당동에 만들었지만 며칠 후에 경찰들이 건물주에게 압력을 줘서 집기를 다 끌어냈어요. 전시장에 있는 것도 그 사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장로교와 독일 ‘인간의 대지’를 통해서 평화의 집과 노조 사무실 재산이 만들어졌어요.

형숙 씨가 하기 어려웠던 것은 재산 형성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문익환 목사님 명의로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있었는데요. 10여 년, 2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 각자의 삶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재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계천7가에 있는 노조 사무실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되고 처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박계현 총장이 이어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어머니도 한 분의 인간이기도 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일하기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동안 항상 어머니를 보아 왔을 때 마지막에는 분명히 바르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수호 재산이라는 게 삶에서 가장 힘든 문제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청계피복노조의 탄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까지 도와 주기도 했는데요. 그때 청계노조도 그렇지만 그와 함께 싸우는 전태일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가 함께인 것에 돈도 보내고 지원을 했던 것이죠. 어느 보통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개인적인 영향력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머니 결단으로 그 모든 것을 공적으로 돌리고 재단으로 만들어서 사회화시켜버린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다른 가족들로부터 원망도 듣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면모가 이런 일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은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마음 아프기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념사업회와 어머니. 기념사업회가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휴식)

2.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

이수호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 오셨는데 그 과정에 가슴에 맺힌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아직 차마 말 못 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그 또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했던 일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새롭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와 기념사업회 설립 및 운영, 주요 활동을 묶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태일 정신 계승의 시원은 아들의 유지를 잊겠다는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바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는 엄혹한 시절이라서 전태일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온한 행위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알음알음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전태일기념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더 지난했던 과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었는지에 관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하면서 나온 부분도 상당히 있기에 연결하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일기념사업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대체로 언제부터였는지. 본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나 그 전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교실에서 전태일 정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평소에 어머니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지, 기념사업회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어땠는지.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처음에는 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로 시작했죠. 그 설립 과정은 어떠했는지, 설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즉 그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 전태일 평전 발간,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지, 전태일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상황, 정부의 탄압, 비협조, 재단 근무를 비롯한 주요 후원자들, 내부 활동가들 등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되, 가능하면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어머니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일기념사업회 설립 이후 전태일 운동과 기념사업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태일정신계승 및 확산을 넘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노동학교나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여러 곳에 산재한 노동자들의 소통 기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을 만들고 각종 문학 행사와 토론회를 주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대했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가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념사업회에서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전태일 정신을 함양하는 영화, 연극, 전태일 거리 조성, 다리 설치 등 많은 일을 수행했는데요. 기념관에도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이야기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시행하게 된 계기,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을 제정

하게 된 계기. 소식지 「전태일 통신」은 그 전에 「사람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되었죠.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제작 관련 및 전태일 거리 조성에 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가 특별히 애착을 가진 사업이 있었는지. 또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사업이 있는지. 노회찬과의 특별한 관계, 노회찬이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어머니가 노회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만들 때 전태일 역을 했던 홍경인 배우와 어머니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이야기. 추도식 및 기념사업을 통해서 양대 노총을 연결하는 과정에 어머니의 역할은 어땠는지, 기념사업 중 선생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지.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첫 시작부터 활동 내용 등 모두를 종합해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황만호 전태일기념사업회 전신이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인데요. 81년도 1월에 서울시로부터 청계피복노동조합 해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1월 말경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간판이 뜯긴 채 강제 폐쇄를 당하는데요. 당시 조합 간부들과 어머니까지 함께 당시 부녀부장이었던 신순애 선배 집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때 의견은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전두환에 맞서서 싸우기란 어렵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중견 조합원들을 비롯한 몇 사람들은 그래도 싸워야 하고 싸워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81년도 당시 미국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두환의 폭압적인 탄압을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전두환이 미국에 간 상황이라 오히려 외신을 통해 더 잘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



전태일기념관 개관식에서 발언하는 이소선, 1985, 전태일기념관

어요.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더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 12시 다 되어서 해산당하고 구속되었어요.

신순애 누님 집에 모였던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어서 당시 지부장이었던 임현재 지부장, 이승철 지도위원, 이소선 어머니도 농성장에 같이 있던 않았는데도 개헌법 위반으로 같이 구속됩니다. 민종덕 선배도 아프리(AAFLI)에 같이 갔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웃음) 말은 빵 사러 간다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광용하고 태삼이 형이 뛰어내려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신광용은 불구속 상태로 있었죠. 그러니까 전태일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청계노조는 없어졌고 어떻게 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구속된 상태여서 잘 모르지만. 민종덕 선배와 재야 어른들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덕귀 여사님을 모시고 그것을 통해서 추도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먼저 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나중에 82년 12월 24일에 나왔어요.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활동하셨어요. 이후는 형숙 동지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형숙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노동상담소 같은 공간이 있었지만 다시 기념사업회로 전환했어요. 그래도 그런 활동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전태일기념사업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의 부설로, 꼭 부설이라는 개념보다는 합법적으로 상담도 하고 노동자들 조직화하면서 전태일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노동상과 문학상도 만들며 노동운동 외곽을 넓히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3년 동안 지나오는 과정에서 전태일을 더 알리자고 했어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도 영화를 만들자고 했었는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에서 이소선, 1985, 전태일기념관

데 그게 잘 안되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분위기를 타면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후원금을 모금해서 만들게 됐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역량을 다 쏟다 보니까 기념사업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중단된 것이죠. 제가 95년도에 왔을 때 전태일노동상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전태일문학상도 책을 여러 권 내긴 했지만 역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기금도 만들고요.

그래서 영화 만든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태일기념사업이 사회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든 전태일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고 거리감이 없이 존중해 주는 시기였죠. 그러면서 노동자들 또한 조직화가 되었어요. 사실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만큼 (기념사업도) 같이 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만들고 후원회원들 대상으로 소식지 「사람 세상」을 보내는 것도. '살아오는 전태일, 다가오는 사람 세상'을 구호처럼 저희가 쓰잖아요.

영화를 후원했던 사람들은 5천 명이라고 하지만 먼저 주소가 있는 2천 명을 대상으로 전태일을 계속 알려야 한다, 이 끈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식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린 마음에 소식지에 무언가를 실어야 하니까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어야 했어요.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문화답사 모임과 영화 모임을 하고, 노동 현장에 갔다 와서 소식지에 싣고, 현장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전태일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막 나아지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런 상황들이 같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태일을 알리는 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보자는 생각으로 1997~1998년에 전태일 거리를 선포하게 돼요. 청계천3가에서 8가까지 청계천 이름을 떼고 전태일이라는 이름으로 걸어 보자고 선포한 거죠. 매년 그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무언가를 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2000년도 30주기에 작은 동판을 설치했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장소임을

알리는 동판을 박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동판이 왜 이렇게 작냐'고 했어요. (웃음) 언론에서는 동판이 클 것처럼 보도했거든요. 소극적으로 만들긴 했죠. 30×40센티짜리였어요. 사실 그게 상인들 눈치를 보면서 돌출도 못 하고 일단 자리를 선점하자고 하면서 박은 거죠. (웃음)

이수호 신군부 들어서면서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난 1980년 이른바 아프리(AAFRI) 사건을 계기로 그게 탄압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태일 운동이 새롭게 거둑나는, 그러니까 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그것을 딛고 태동했다는 것이죠. 태동한 후에 당당하게 전태일 이름을 걸고, 전태일 중심으로 운동을 하자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진행을 해 오다가 1995년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영화에 전력투구하다 보니 다른 사업은 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전태일기념사업회가 다시 한 번 거둑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흐름을 볼 수 있겠네요. 박계현 총장님은 그런 과정에서 늘 같이 계셨으니까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요.

박계현 그 당시에는 어머니는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념관건립위원회도 나름대로 외부 인력을 중심으로 꾸렸고요. 저희가 기념관건립위원회 실무 책임을 맡았어요. 기억나는 것 하나가, 그 이후 얼마 안 있다가 독립기념관건립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웃음) 그래서 오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놈들이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가 확산되는 계기를 막고자 독립기념관건립위원회를 만드는구나'라고 정인숙 선배님이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초기에 그런 사업들에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다른 후배들, 형숙 씨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구속도 되고 나름대로 전태일의 후에

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기념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와서 고생하시고.

이형숙 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이 있었어요.

이수호 그때의 아픔을 다시 회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군부 때 계엄법 위반,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 되면서 그 당시 사건이 전부 재심청구되었죠. 이번에 검찰이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당시 사건을 직권으로 무죄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죠. 모든 역사가 바로잡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감옥에 가신 것도, 아까 말씀하신 신순애 조합원 집에 있었기도 했지만 그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 모임에 가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계엄법 위반으로 묶었던 것이죠. (웃음)

황만호 아프리(AAFLI)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죄명이 매우 많았어요. 그때 당시 계엄법도 있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방화의 위험도 있었고, 집시법도 있었고. (웃음)

박계현 일반인들이 우리 공소장을 보면 깜짝 놀라요. 계엄포고 10호부터 시작하고,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음모, 폭력, 집시 등 죄명이 강했어요. (웃음)

이수호 황만호 동지도 그때 감옥에 간 것이죠?

황만호 네. 첫 번째로 간 거예요.



왼쪽부터 박계현, 이형숙, 황만호

이수호 계엄법 위반이죠?

황만호 네.

이수호 재심을 했었나요?

황만호 아니요.

이수호 그러면 다른 이야기지만 챙겨 보세요. 이번에 그 기간 것은 모두 무죄로 했어요. 어머니는 원체 유명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검찰이 알아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검찰이 알아서 안 해 줘요. 본인이 주장을 해야 해요.

박계현 저분은 불 지르려고 해서 쉽게 무죄로 안 해 줄 거예요.
(웃음)

이수호 아니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계엄법이니 까요.

황만호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면요. 81년도에 노조가 강제 해산되고 정말 믿고 있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노조도 없어지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낙담하고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엄중한 시기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1984년 4월 8일 명동성당에서 청계피복노조를 복구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시 살아온 느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1970년대에는 어머니 집이 아지트였어요. 1980년대에는 어머니 집이

아지트가 아니었어요. 될 수도 없었고요. 그때 조합원들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야학 학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후배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어쨌든 노동조합이 복구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노조가 탄압을 받을 무렵에 저는 사무실 집기가 내려온 것을 출근할 때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와 함께 노조를 지켜 나가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수호 아프리(AAFLI) 사건 이후에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를 만들면서 펼쳤던 사업 중 하나가 전태일 평전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거죠. 그때만 해도 조영래 변호사 이름은 못 걸고 발간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보이신 어떤 태도나 기억나시는 것이 있나요?

이형숙 약간 열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기념사업회에 있을 때 매년 일본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데요. 오면 유가협에 가고 기념사업회에도 와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좋아할까?’ 하면서 궁금했어요.

이수호 일본 사람들 특징이죠.

이형숙 그래서 작년에 박사 논문 쓰고 난 후 가방끈이 길어졌으니 전태일 50주기에 무언가라도 작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생각했죠. 그러고는 일본 노동자들은 왜 전태일에 열광하고 매년 찾아오는지 일본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본에서 어머니 영화가 78년도에 나왔다는 것

은 알고 있었고요.

이수호 자기들이 영화로 만들었죠.

이형숙 네. 일본 영화. 자기들이 모금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가 일본 노동운동 판이 재편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総評)이라고 노동자 조직률이 80퍼센트, 70퍼센트 가까이 있는 곳이 재편되면서 노동조합 4개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50~60년대에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달리 일본 노동운동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총평에서 전태일과 이소선의 활동을 알고 어머니 영화를 만들 때, 총평에서 같이 모금을 하고 상영 운동도 같이해요. 지역별로요. 그래서 30만 정도가 보게 되는데요.

또 그 전에 평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전태일 열사의 유고집과 일기장이 87년도에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요. 이미 일본에서 77년도에 일기장과 편지를 엮은 유고집이 나와 있었고, 전태일 평전은 『불꽃이여 나를 태워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어요. 그리고 78년도에 『세계(世界)』(이소선, “내 노동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 아이 전태일의 죽음을 기억하며”, 1978년 2월호, 118~139쪽)라는 잡지에 이소선 이름으로 40장 가까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내 아들 전태일’이라고 해서요. 당시 청계피복노조가 주최하는 추모제의 의미가 컸잖아요. 75년 추모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가 되어서, 내 아들이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을 어머니 이름으로 쓰셨더라고요. 그게 일본의 수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도 전태일을 찾아서 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1월에 어머니를 보고 ‘전태일정신계승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 코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어요.

황만호 79년도인가, 종덕이 형 집에서 전태일 평전 복사본이 있어서 봤어요. 그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을 조금 보다가 나와서 그다음은 보지 못했는데 83년도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것은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이름으로 책이 나와야 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수호 그 당시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회장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셨죠?

황만호 네.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혹한 시기였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미 책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결단을 문익환 목사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지나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수호 1991년도가 되어서야 조영래 이름으로 나오니까요. 대단한 일이죠. 그때 83년도에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해적판 비슷하게 나왔는데 몰래몰래 빌려 봤죠. (웃음) 저도 사실은 그 책 때문에 전태일을 만나게 되었죠.

박계현 평전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하면요. 그 후에 있던 일인데요. 그동안 돌베개에서 계속 출판을 해 왔는데 처음에는 인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몇 판 찍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찍어서요.

이수호 찍어서 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박계현 처음에는 고맙고,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기 때문
에요.

황만호 돌베개 출판사도 대단한 각오를 하고 출판한 것이죠

박계현 대단한 각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책이 잘 팔리게 된 거
예요. 그래서 책이 잘 팔리면 어머니에게 활동비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
서 활동비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돌베개에서 인세가 잘 안 들어온 거
예요. 제가 총장으로 일 년 정도 있을 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돌베개 사장을 만났는데요. 그동안 출판사가
상당히 커지면서 전태일 평전을 펴내고 있다는 상징성만 있지 이것을 적
극적으로 보급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느껴졌어요. 안 팔려서 못 드
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깐요. 그러면 책을 가져와야겠다, 판권을 가져와
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장기표 선생님이 이사장님이었는데 출판사 등록을 했어요. ‘아름다
운 전태일’이라고 쓰고, 책을 여기서 출판하게 되었죠. 그러고는 일 년에 4
천 권씩 판매가 되면서 어머니에게 꾸준히 인세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40주기에는 꽤 많이 팔렸어요. 4만 권 정도 팔려서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 지금까지 평전을 전태일재단에서 출
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수호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념사업회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 재정 상황이나 다른 사업
문제 특히 활동하는 일꾼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아까 형숙 씨
가 쉬는 시간에 말한 것처럼 당장 사람이 없어서 2년간 비어 있기도 하다
가 그다음에 황만호 씨가 잡혀 오기도 했는데요. (웃음) 어려운 재정 상황

이나 사람 문제나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어려움
을 헤쳐 왔는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형숙 기념사업회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지켜보시면서 행사에만
참여하셨을 때니까요. 재정적인 부분은 그 문제까지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는데 어려워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운영위원이나 이사들
이 있으니까요. 전태일기념사업회조차도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지만 밖으
로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위상상 한
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수호 어려운 노동자, 싸우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전태일과 같이
하고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도와달
라는 소리도 못 할 정도로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웃음) 아까 어머
니에게 부담을 안 드려야겠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품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되는 일은 그냥 맡겨 놓고 지켜보시죠. 그러다가 굉
장히 힘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나서는데요. 기념사업회
와 관련해서 그런 일은 없었나요?

박계현 어머니를 가장 많이 가까이서 모신 황만호 동지가 할 말
이 많으시죠? (웃음)

황만호 제가 기념사업회 왔을 때는 모셔야 하는 할머니가 되셔서
그 것처럼 하는 것은 어렵죠. 사실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있고 지금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지만, 이형숙 동지가 정말 어
려운 시기에 역할을 했죠. 평생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할 것처럼 했던 저나
박계현이나 김영대나 이런 친구들은 다 없을 때 이형숙 동지가 제일 고생

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형숙 아니에요. 속 편했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웃음)

황만호 활동비도 없이, 활동비도 받지 못해서 나중에 한 번에 주니까 그것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형편이 안 좋았죠. 그래도 70~80년대에 활동하면서 관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돈 내놓으라고 떼를 썼어요. 위기철 선생님한테도 기념사업 해야 하지 않냐고 빗쟁이처럼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웃음) 그래서 월급은 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념사업은 어쨌든 사람 사업이에요. 전태일기념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함께해 나가야 하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계속 활동을 해 왔으면 사람을 엮어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활동가를 찾아내면 이상한 친구들이 오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오거나 했죠. 겨우 마지막에 건진 사람이 오도엽이었죠. 도엽이를 통해서 어머니 책을 쓰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참 사람 사업이 가장 어렵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잘하고 있으면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전태일 거리 동판이나 기념상을 만들 때도 어머니가 특별히 뭐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들어졌을 때 좋아하셨고요.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정도였어요. 진짜 어머니는 잘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이수호 보면 늘 혼자 속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황만호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웃음)

이수호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특별히 노회찬 의원이나 아까 예를 든 홍경인 배우가 전태일 역할 맡았을 때 애뜻하게 대했던 모습들이 간간히 소개가 되기도 해요.

박계현 노회찬 의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출정식이라고 하나요?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출정식이나 후원 모임을 하면 어머니가 꼭 가셨어요. 노원구에서 했었죠. 노회찬 어머니와 이소선 어머니 연세가 같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자주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잘 챙겨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변했더라도 인연이 길고 오래간다’ 하셨죠. 당시에 어머니와 좋은 인연이면 기억을 항상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노회찬 의원 출정식 때마다 갔으니깐요. 제가 직접 모시고 노원에 여러 번 갔어요. 노회찬 어머니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봐 왔어요.

이형숙 저는 어머니 칠순 잔치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찬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농성 중에 칠순 잔치를 했어요. 그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전날 이회호 여사가 오신다고 해요. 그러고는 칠순 때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70년대부터 계속 봐 왔던 박용길 장로님이나 관계를 맺은 분들 행사 있을 때는 항상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색깔들이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보수적인 정당에 가도 예전에 연관이 있었으면 품으시려고 하고, 가서야 되면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말하지 않고도 나중에 알고 보면 가시고. (웃음)

박계현 어머니가 노동자가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갈등이 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전화라도 해서 ‘그래도 힘내야 한다’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하나 되라는 말씀은 흔히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숨은 노력이 굉장히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전화했다고 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동네방네 떠들 일은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위원장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힘내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갈라졌을 때 마음 아파서 야단도 치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단합해도 모자란데 갈라서게 되었다는 아쉬움은 오랫동안 말씀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수호 아까 사람 문제, 한번 정을 주고 한번 사귀면 오래가고.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사람 눈치 봐 가면서 챙기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문수가 아닌가 해요. (웃음) 김문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황만호 저는 김문수 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사라고 하기엔 그럴 것 같고. 선배, 형들과의 대담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형이 어머니 집에서 살기도 했고. 선배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몰랐을 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함께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했었어요. 또한 전태일재단이 만들어질 때 재산 형성,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인간의 대지>를 통해서 왔던 최혁배 선배도 친한 친구고, 같이 이야기했던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가 70년대부터였죠. 그리고 저쪽 당으로 갔지만 김문수 형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뵙고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미련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얼마 전에 제가 그 형 책과 장기표 선생님 두 양반 책은 다 버렸어요.

(웃음) 사실 너무 좋아했던 분이예요. 저에게 직접 선생님이로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요. 참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했기에 그래도 활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힘도 냈었으니까요. 아... 저렇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안타까웠어요.

이수호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안 버렸다는 거죠?

박계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하다 보면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당으로 갔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상도 높아지고, 속된 말로 출세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야기하다 보면 눈에 읽혀요. 그러니까 당을 여러 번 만든 사람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장기표 선생님인데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것이, 박세일 전 의원이랑 여의도에서 당을 만들 때요. 그 이후에도 당을 만들었는데요. 당을 만들 때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비가 너무 와서 ‘오늘은 좀 쉬세요’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장기표가 하는 곳은 지옥이라도 가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웃음) 결국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 가서 상당 부분 기부도 하셨어요.

이수호 장기표 씨하고는 특별하죠? 전태일 분신항거 이후 바로 뛰어왔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황만호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양반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딴어...

이수호 어머니가요?

황만호 아니요. 어머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들이요.... 아이고....

이형숙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것도 있고,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미 전태일 영화도 만들어진 다음이고 굳이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농성장 같은 곳도. 그런데 2007년부터 기륭 전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현장에 가신 것이죠. 끊임없이 희망버스도 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박계현 현장에 호출된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가 쟁점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태일이다. 그래서 어머니 스스로도 흔쾌히 가고 싶어 하셨고요.

이수호 호출되었다는 말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힘든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나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편하게 남자와 여자로 치면 두 분이예요. 백기완, 이소선. 그러니까 두 노인네가 가서 늘 손잡고. (웃음)

박계현 백 선생님이 쓰러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힘드신 몸으로 한마디라도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모습이나,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현장에 갔던 모습이나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이형숙 어머니가 기륭전자 농성하는 데 가지않아요. 저는 처음 한두 번 정도. 동대문에서 구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노인네가 맨날 아이고, 하면서 가세요. 농성장에서도 경찰들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

면서 욕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아프다고 하세요. (웃음) 구로를 갔다 오시면 밤새 끄끄 앓고는 했어요. 처음에 한두 번 가시다 말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계속 가실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수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낄 텐데요. 저도 70이 넘어 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어머니는 80을 넘기고도 농성장 가서 소리치는 것, 소리칠 때는 모르지만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밤새 끄끄 앓으면서도 호출하면 또 가시고 하는 건데요. 그게 진짜....

황만호 80년대 후반부터 보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저희와 처음에는 같이 갔지만요. 택시 노동자 박종만 씨 돌아가셨을 때 찾아가서 영안실에서 싸우고. 이석규, 박영진 등 80년대 후반에 전국에서 분신한 분들.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와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너무 아팠을 거예요. 저희보다 마음이 훨씬 아팠을 텐데 그런 곳을 빠지지 않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시신을 탈취하기도 하고 싸움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런 곳에 제일 먼저 가서서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어떤 유가족은 이상한 사람 왔다고 막 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인도해 주고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해 오신 거죠.

박계현 그것을 계기로 유가족 회장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80~90년대에 투쟁 현장에서 분신하고 했던 현장들은 어머니가 반드시 찾았어요.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요.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수호 전태일의 어머니라서 가능한.

박계현 네. 그래서 가능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여차하면 시신을 탈취해서 협상하기 위해 사람이 저쪽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못 하게 어머니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수호 기념사업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생기면서 어머니는 이전에 청계피복노조나 개인적인 전태일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한 조직의 상징적인 인물 혹은 대표가 되면서 기념사업회로 어떤 행사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총장이 어머니께 보고를 드리고 하니깐요.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가 잘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기념사업회의 일을 대표로 하신 거잖아요?

박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상근도 하시고, 이사장 자격으로 하시는 활동이 많으셨지만요. 그때는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어떤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랑 의논해서 갔었죠.

이수호 기념사업회의 조직적인 활동에 무게를 많이 두고 책임감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소선 정신 계승에 관한 이야기와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이소선 정신 계승과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역할

이수호 다음은 이소선 정신 계승을 위하여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태일 정신과는 독립적으로 이소선 어머니의 정신 또한 우리가 계승하고 확산해야 하는 가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가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10주년이 된 해이죠. 이소선 정신 계승과 이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소선 어머니의 정신과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지 또는 이소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태일기념사업회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참여했던 시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회,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계현 대체로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유언을 받아서 아들이 실천하는 경우가 인류의 보편적인 삶인데요. 독특하게요. 어머니의 삶은 40년을 보편적인 어머니로 사시다가 아들의 유언을 받아서 다시 40년 남짓을 민중의 어머니로 뜻을 받들어 살았던, 어머니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사적으로도 독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태일 정신 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정신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전태일 형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머니가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판단을 내리는 직관력과 헤쳐 나갈 수 있는 실천력, 그런 결단과 실천이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을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저도 그렇지만요.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관된 삶을 살다 가셨어요. 쉽지 않

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인간에 대한, 민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순간에 따른 결단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기념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 인생에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어머니의 결단으로 재단을 만든 과정에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어머니를 모셨던 것이 자랑스럽고 뜻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형숙 저는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노동 현장을 지켜봐 왔지만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보통 이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님들도 노동운동 하셨지만 부침 중 하나가 여러 정파, 다른 생각들에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저는 한 번도 이소선 정신과 전태일 정신을 분리해서 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질문지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소선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해 오셨던 활동에는 이념이 없었어요. 노동자들 옆에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가야 하는 과정을 이념의 목표와 지점을 정하지 않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쳐내기도 하셨지만 이 과정도 중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무상의 연대 같은? 대가 없이 그냥 같이하는. 그리고 어떤 목표,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도 성찰해 보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 또는 욕심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도 별로 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념사업 영역에서 어머니 정신을 따로 기려야 하나,라는 부분은 잘 모

르겠어요. 전태일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이소선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선배님 말씀처럼 고생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 인생에서 20대 중후반을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어요. 또 저 일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노동 현장에 갈 수 있는데 못 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고, 학생들도 있었고. 노동자들도 전태일에 관한 일이면 현장에 와서 몸으로 도와주고, 운전도 해 주고, 물건을 날라다 주고 했어요. 제가 몇 년간 상근을 혼자 했지만 온전히 혼자 했다는 기억은 없어요.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는데요. (웃음) 전태일기념사업회 하면 다 그건 알아요. 되돌아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 수 있는 사회가 고맙더라고요. 아무런 선을 긋지 않고 받아들여 주고. 한때 제가 몸담았던 이름들의 사회적 위상이 남아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웃음)

황만호 질문지를 보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이소선 정신이더라고요. 어머니 정신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머니 비석에 있는 비문을 보면, ‘옷도 자동차도 세상 모든 제품을 노동자들이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왜 뽀박받고 억압받냐. 노동자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어머니 정신이냐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어머니로 되셨던 것이, 아들의 유언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아들의 정신이 어머니 정신이 아닌가 해요. 태일이 형 일기장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고생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인데요.

일기장에 보면 정말 하루하루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이 마지막 아닐까 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자기보다 어리고 약

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러다가 낙담하고, 다시 용기 내면서 삼각산기도원에서 ‘돌아가야 한다.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내 생의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가겠다.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그 굴레를 이후의 세계에서 굴릴 수 있다면’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남겼던 말이 얼마나 어머니에게는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해 오셨는데요.

전태일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움직인 것이나 태일이 형이 움직인 것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추진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단력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정신을 따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태일의 정신이 바로 어머니 정신이고 어머니 정신이 전태일 정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태일을 알았던 일이, 어머니를 알았던 일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태일을 몰랐고, 어머니를 몰랐다면... 제가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요. 전태일을 알아서 노동조합도 하고, 노동조합 하면서 영광스럽게 감옥도 두 번이나 가고,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하고, 전태일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많지 않은 나이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태일 활동을 했다고 해서 대접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니깐요. 전태일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행운이었고 축복이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기쁨을 얻기 위한 것들이지 않았나 합니다.

이수호 그럼 마지막으로 기념사업을 맡아서 고생도 하시고 보람도 느끼셨는데. 이처럼 꾸준히 이어 온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전태일 운동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형숙 (웃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에서 기억할 수 있는 기념사업의 영역으로서는 전태일기념사업, 전태일기억사업은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노동해방이었다면 지금은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은... 지금도 계속 사고 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없는 사회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구호일 수 있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없는 게, 기념사업회가 도달해야 할 목적인 것 같아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웃음) 지금으로서는 잊지 않고 시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수호 전태일이 바라고 원했던, 어머니가 원했던 사회를 말로만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가는 일에 꾸준히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박계현 저는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어서요.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관련하여 TF도 만들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TF에 참석은 안 하고 있지만요. 40주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때 보면 그때까지도 저희 또래나 아래 세대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전태일에 대한 일정 정도 마음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전태일 운동, 전태일 기념사업에 함께 움직여 왔는데요.

그보다 젊은 세대들인 30대들에게 마음의 빛이라고 하면 ‘나 빛 없는 데?’라고 해요. (웃음) 그리고 위인처럼 느끼는 여론이 있어요. 젊은 세대, 나이가 어린 세대들이요. 물론 끊임없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청년 세대에 기억되고 그들의 삶에 전태일 정신을 녹여 내는 사업을 중심

으로, 위인이 아닌 우리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가 전태일이라는 것을 심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런 것을 중심에 둔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만호 솔직히 저는 잘 모르니까요. 안다고 한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기념관에 오면 올 때마다 전시장에 들르는 것 같아요. 와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참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전에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태일을 알려고 하고 전태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태일의 삶이 우리 사회에 꽤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전태일재단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막 해 나갔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 사회에서 전태일재단이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한다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싸워 왔죠.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여유롭습니다. 같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조직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정체되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되기도 하고, 조직 이기주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전태일이라는 상징을 가진 전태일 조직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쫓아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 바른 소리 하는 곳.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론회라든지,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

아들이지 않든요. 사실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한다고 해도 쉽지 않고 또 잘 표시도 안 나고요. 한편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노동운동의 이정표, 지침, 우리 사회운동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호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못다 한 이야기라든지 이것은 꼭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만호 제가 이수호 이사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태일기념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운영해 왔는데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전태일재단을 체계화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정말 고맙고, 오랫동안 이사장님 자리를 맡아 오시고, 지금 기념관 관장도 하시니까 솔직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사장님께 어떤 부분은 죄송스러운 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다 품고 해 오신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마음은 항상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전태일 이야기만 하면 눈이 가고 다시 보게 되는데요.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이사장님에게 고맙고, 형숙 씨에게, 계현이에게도 고맙고. (웃음)

박계현 기념관이 생기고, 재단 일이 많아지고 활성화되면서 태일이 형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에 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말할 수 있는 이 계기가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형숙 오늘 기록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이 일이 전태일하고 인연이 된 거잖아요. 무언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왔을 때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층층시하인지라 어려웠어요. 사람은 없는데 층층시하에서 ‘전태일은 이래야 해’ 하는 권위적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런 거만 들어도 되는 건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냥 해도 돼’라고 하셨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고 ‘네가 해 봐’ 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에게 묻기도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요. 외형적으로는 기념관도 생겨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야 할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전태일을 기억하는 사업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지금은 기념관이라서 비용도 나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인연이 계속 가면 좋겠다, 같이하면 좋겠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해 봅니다. (웃음)

이수호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태일기념사업의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이소선 어머니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작가님, 촬영감독을 비롯한 촬영팀, 우리 전태일기념관의 일꾼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계현, 이수호, 이형숙, 황만호